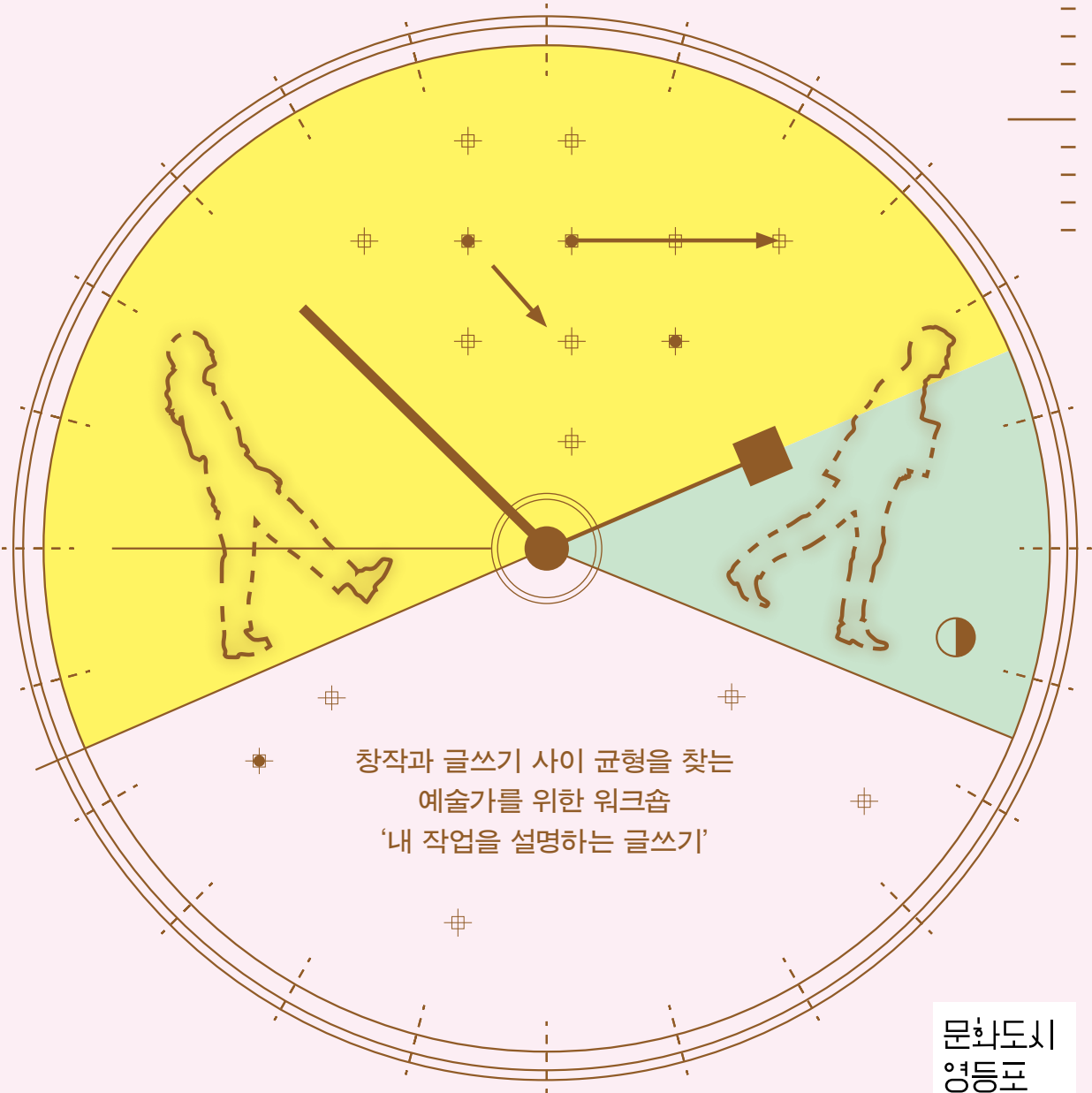


2025 예술하는 예술가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결과자료집



문화도시
영등포

본 자료집은 2025년 문화도시 영등포 —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무단 전재를
금하며, 내용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하려면
영등포문화도시센터, 영등포문화재단,
바인드 아트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025 예술하는 예술가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결과자료집

누군가는 예술가의 삶이 느긋하고 자유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만들어놓은 제도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술가의 작업은 때로 자기만족이나 취미 활동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또한 한 명의 직업인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밤낮없이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업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사와 이전 작업 정리, 협업자와의 만남, 재료를 고르거나 실험해 보는 시간, 작품 발표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작업에 몰두할 공간 마련하기,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나의 작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까지도 모두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창작과 발표를 이어가는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화하여 외부에 전달하는 글로 다시 써내는 일은 혼자 해내기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는 예술가들이 창작과 글쓰기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며, 동시대 현장의 동료들과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예술가들은 각자의 생활 리듬과 상황에 따라 '낮(포트폴리오)'과 '밤(아티스틱 리서치)'이라는 두 개의 트랙을 선택해 강연-워크숍-리뷰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서로의 언어와 작업에 귀 기울이며 글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예술가에게 필요한 정보 교환을 넘어 서로의 작업과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낮과 밤을 지나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 안심하고 예술할 수 있는 곳 —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더욱 다채롭게 펼쳐질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

목차

사업 소개

6

프로그램·워킹 메이트 소개

8

프로그램 추진 경과

10

낮의 글쓰기

30

밤의 글쓰기

66

참여 예술가 후기

102

부록 | 워크시트

104

사업 소개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문화도시 영등포

문화도시 영등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도시의 문화와 특색,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 서로를 발견하고, 초대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상호협력',
- ✦ 영등포의 다채로운 수변 생태를 누리는 '도시수변',
- ✦ 예술과 기술이 만나 창조적 문화를 여는 '예술기술융복합',
- ✦ 예술가가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예술안심',
-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한 '도시경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문화로 연결되고, 삶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위해 문화도시 영등포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민과 함께 그 길을 이어갑니다.

예술안심문화

예술창작 기반 조성 and 예술향유 확대를 통해,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는 '예술하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핵심가치	문화협치 문화공유 문화다양성 생태문화
비전	능동과 긍정의 문화시민 지역 곳곳에 문화생산 다채로운 창조적 공유지
상호협력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DP 크리에이터 ✦ 문화복덕방 ✦ 생활권 문화공유지
예술안심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하는 예술가 ✦ 예술가.ZIP ✦ YDP EDITION(리빙아트페어)
예술기술융복합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테크 플레이어 ✦ 예술기술 융복합실험실 ✦ 예술기술도시
도시수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수변 디자이너 ✦ 도시수변 문화연구실 ✦ 수변공공디자인
문화도시경영	문화도시센터 운영(도시브랜딩 도시연대프로젝트 모두의 공간)

예술하는 예술가

예술하는 예술가는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예술가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2022~2023년	예술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공론장 목요일> 운영 ✦ <예술안심가이드> 제작 ✦ <YEYE SHOP 지원사업 기획> 운영
2024년	예술활동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가 주도 프로젝트 운영
	<토끼굴에 빠진 예술가> 운영
2025년	예술활동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운영

프로그램 소개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기획 의도

예술가로 살아가다 보면 그동안 해온 작업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설 때가 있고, 새로운 영감을 따라 방향을 바꿔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는 이른 아침 작업실로 향하고, 다른 누구는 일이나 육아를 마친 밤늦게야 비로소 창작을 시작하기도 하지요. 시간이나 방식은 다르지만, 예술가라면 누구나 ‘글’이라는 언어로 자신의 작업을 소개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는 ‘내 작업을 설명하는 글쓰기’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창작과 정리, 낮과 밤이라는 서로 다른 리듬을 균형 있게 다루며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글쓰기를 함께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워킹 메이트란?

예술가는 때로 창작과 글쓰기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작업과 발표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창작 활동을 이어갈 큰 힘을 얻습니다.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는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강사’라는 호칭 대신 함께 일하는 동료 Working Mate이자 함께 걷는 사람 Walking Mate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아 ‘워킹 메이트’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여섯 명의 워킹 메이트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의 리듬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예술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적절한 언어를 함께 찾아가는 동료이자 동행자입니다.

프로그램 개요

대상	‘내 작업을 설명하는 글쓰기’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가
모집 규모	예술가 30명(트랙별 15명) 조건부 선착순 모집 *영등포 기반(거주지, 작업실, 활동 이력) 예술가 우선 선발
공통 과정	작가 소개글 쓰기 나의 활동 이력, 관심사, 매체 등을 키워드로 탐색하고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짧은 글로 정리합니다.
선택 과정 (택 1)	낮의 글쓰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마치 햇빛이 비치는 낮처럼, 나의 작업을 또렷하게 되짚으며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봅니다. 밤의 글쓰기: 아티스틱 리서치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밤,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나의 작업 개념과 사건, 사례들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탐색하고 나만의 지도로 정리해 봅니다.

함께 한 워킹 메이트

작가 소개글 쓰기	
임나래	독립 큐레이터 사유지 공동운영자
낮의 글쓰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김솔지	독립 큐레이터 더블데크웍스 공동운영자
밤의 글쓰기: 아티스틱 리서치	
강정아 강병우	문화예술기획자 히스테리안 출판사 운영진
전 회차	
황바름	문화예술기획자 바인드 아트랩 대표
결과공유회(특강)	
봄로아	시각예술가, 기획-매개자

프로그램 추진 경과

참여 예술가 모집

2025. 5. 31.~6. 12.

조기 마감: 6. 9. (모집인원: 83명)

참여 예술가 발표

2025. 6. 13.

영등포 기반 예술가 총 30명 선정

오리엔테이션

2025. 6. 17.

작가 소개글 쓰기

2025. 6. 18.

낮의 글쓰기

2025. 6. 25. / 7. 2. / 7. 9.

14:00~16:30

밤의 글쓰기

18:30~21:00

결과공유회 및 예술가 특강

2025. 7. 17.

오리엔테이션

6. 17. (화) @문화라운지 영

워킹 메이트

김솔지

임나래

히스테리안(강정아, 강병우)

황바롬

창작과 글쓰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예술가들과 워킹 메이트들의 첫 만남. 회화, 일러스트, 조각, 설치, 힙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영등포 기반 예술가 3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알 듯 말 듯 궁금한 당신, 누구세요?” 릴레이 자기소개에 이어, “예술가라면 누구나 이 표현 한 번쯤 써봤다!” 50개의 단어로 빙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가 소개글 쓰기

6. 18. (수) @술술센터

워킹 메이트

임나래

황바롬

작가 소개글 쓰기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참여 예술가 각자의 소개글에 대해 임나래와 황바롬 워킹 메이트가 전한 의견 혹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개별적인 소개글을 모아, 예술가가 자기와 작업을 담아내는 소개글의 일반적인 구조와 언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개글과 작가 노트의 차이점,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소개글이 놓일 자리, 새로 쓰기와 고쳐 쓰기 등 소개글에 얽힌 질문도 다루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예시글을 살펴보며 나는 어떤 예술가인지, 나의 작업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을 나눴습니다.

낮의 글쓰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워킹 메이트
김솔지
황바름

포트폴리오는 나의 작업을 구조화해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창작의 맥락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이미지뿐 아니라, 목차, 소개글, 캡션, 작가 노트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낮의 글쓰기에서는 마치 햇빛이 비치는 낮처럼, 각자의 작업을 또렷하게 되짚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1회차

6. 25. (수) 14:00~16:30
@술술센터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목적과 유형, 기본 요소들을 짚어보며 수신자를 고려한 설득력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회차

7. 2. (수) 14:00~16:30
@술술센터

다양한 포트폴리오 레퍼런스를 함께 살펴보며 나의 작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또한 매번 어렵게 느껴졌던 캡션 작성법과 사진 배치 팁도 함께 나누었지요. 참여 예술가들은 각자 설정한 제작 목적과 분량에 맞게 포트폴리오의 뼈대를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3회차

7. 9. (수) 14:00~16:30
@술술센터

참여 예술가들이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리뷰하며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가'가 아닌 '방향'에 대한 조언, 세부 구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조금 더 또렷한 언어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의 글쓰기: 아티스틱 리서치

워킹 메이트
히스테리안(강정아, 강병우)
황바름

알 수 없는 끌림, 영감, 만남과 같은 일상적 장면들이 예술가에게는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이 됩니다. 밤의 글쓰기에서는 그 사건들을 글로 포착하고 나만의 리서치 맵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회차

6. 25. (수) 18:30~21:00
@술술센터

어렵풋한 영감이 구체적인 단어, 개념, 기술, 장소,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서 예술가의 작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리서치 그 자체가 작업이 되기도 하지요. 예술가의 리서치에 대한 여러 사례를 살피며 나에게 떠오르는 질문들을 적어보았습니다.

2회차

7. 2. (수) 18:30~21:00
@술술센터

총서 읽기, 다른 분야 연구자와의 협업, 개념 맵핑, 공간 찾기, 필드 트립 등 아직 모호한 리서치를 구체화해 나갈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나에게 익숙한 것과 낯선 것, 공유하고 싶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적어 내려가며 정리되지 않았던 텍스트와 이미지들의 관계를 찾아갔습니다.

3회차

7. 9. (수) 18:30~21:00
@술술센터

참여 예술가들이 내 작업의 주요 개념, 관심 자료와 소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리서치 맵을 그렸습니다. 작업 키워드를 도식화한 리서치 맵에 대해 참여 예술가와 워킹 메이트가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며 다음 작업의 방향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결과공유회

7. 17. (목) @문화라운지 영

워킹 메이트

김솔지

봄로야

임나래

히스테리안(강정아, 강병우)

황바름

릴레이 인터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시간! 낮의 글쓰기와 밤의 글쓰기 참여 예술가 각자가 선택한 트랙과 글쓰기의 경험,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번갈아 나누며 함께 했던 시간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글쓰기 과정을 함께 한 워킹 메이트의 따뜻한 소감도 이어졌습니다.

예술가 특강: 봄로야 작가

회화, 퍼포먼스, 음악 분야를 넘나들며 예술 활동을 이어 온 봄로야 작가가 『누군가의 노트 3: -과 사이 쓰기』(2024)를 소개하며 과정과 현재 사이, 글과 작업 사이에서 계속 변화하며 얻히는 쓰기 경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현장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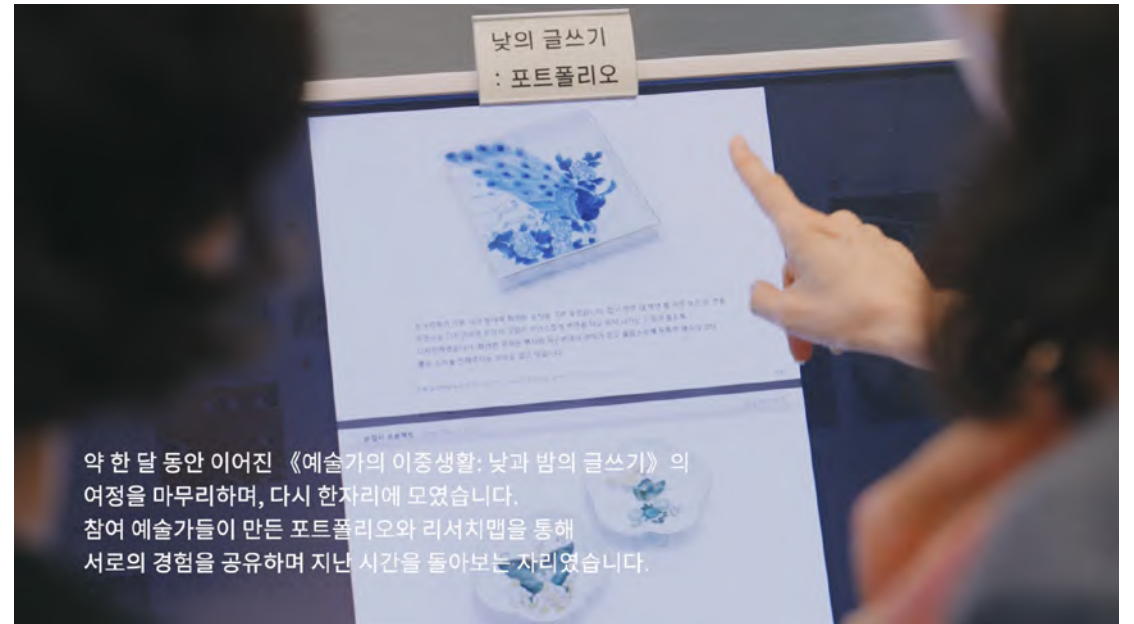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현장 스케치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현장 스케치



함께 쓰고, 함께 나누는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참여자 약속문

1.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 ✦ 우리는 모두 예술계의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 ✦ 타인의 리듬과 방식, 말하기 속도, 언어의 다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 ✦ 상대의 동의 없이 글, 이미지,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
- ✦ 프로그램 중 성희롱, 성폭력, 차별 발언은 단호히 금지되며, 불쾌감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 ✦ 전체 회차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약속합니다.
- ✦ 프로그램 도중 녹음·녹화는 불가하며, 사진 촬영은 워킹 메이트의 동의를 먼저 구해주세요.
- ✦ 강의 자료를 따로 요청하거나, 프로그램 진행 중 제공되는 범위 외에 개별적으로 추가 피드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 모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를 지켜주세요.

3. 열린 대화와 건강한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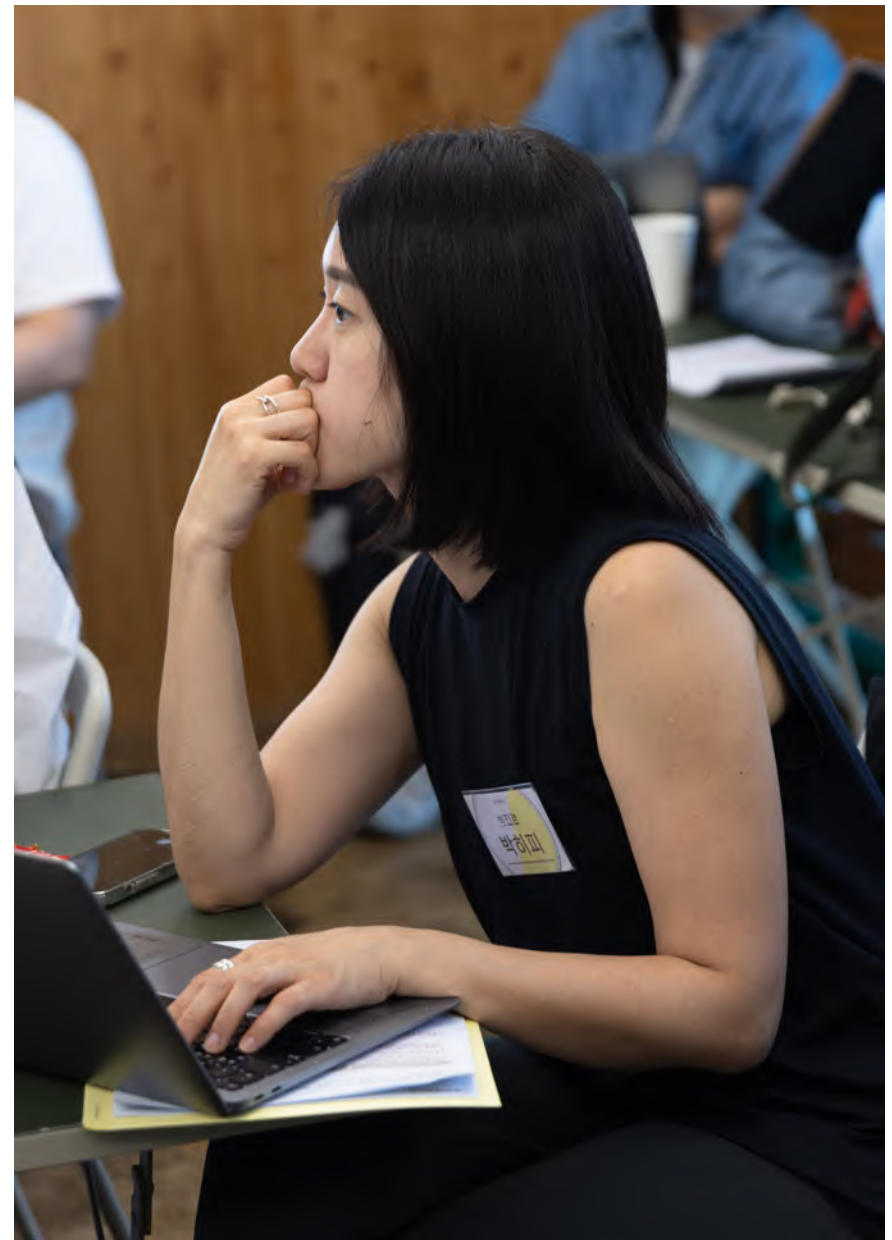
- ✦ 피드백은 비교나 평가가 아닌, 이해와 확장의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 ✦ 대화 중 불편함이 생길 경우, 즉시 표현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듭니다.
- ✦ 질문과 의견은 상호적인 탐색의 일부로, 모두의 경험을 존중하며 나눕니다.

이 약속은 '나의 리듬'으로 글을 쓰는 동시에,
타인의 언어와 안전하게 마주하는 여정을 위한 첫 문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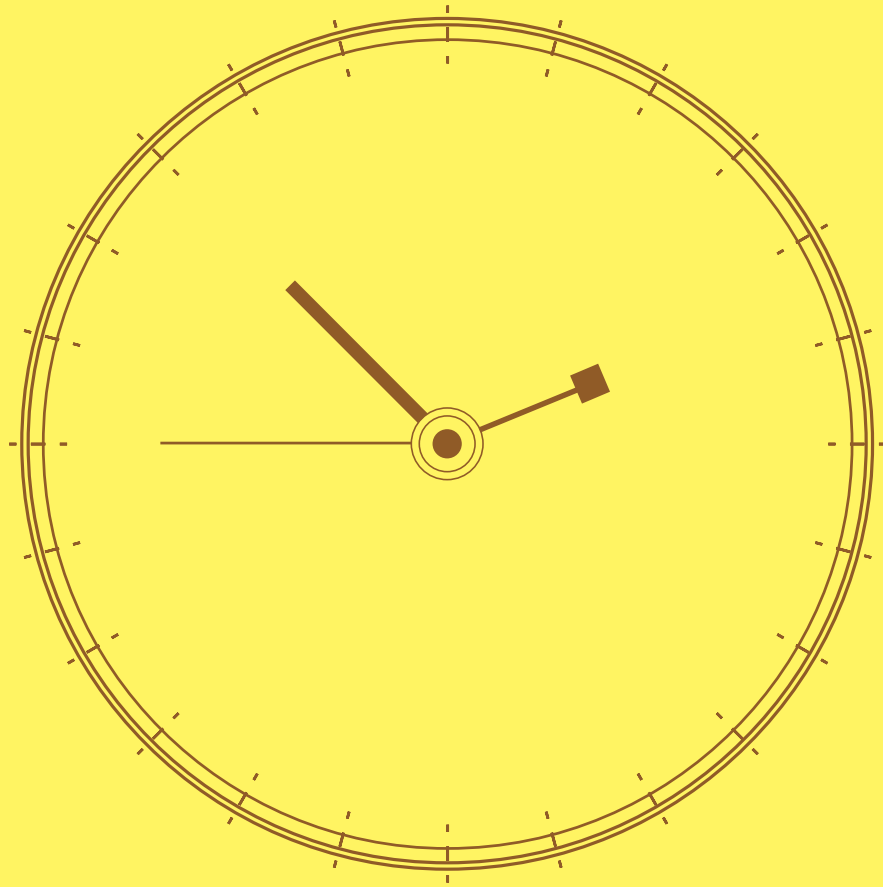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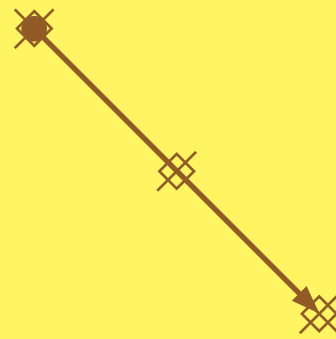








“내가 어떻게 활동해 왔지?
 그동안의 나의 맥락을 정리해 보면
 앞으로의 내가 가야 할 길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나만의 언어를 길을 찾아 정리해 보자.”



낮의 글쓰기

고미랑

김이태

박가란

박수진

박진경^{박히피}

박현주

이말용

이명숙

이순아

이승민^{두리}

이현정

장세인^{조화로운 삶}

조윤아

조혜은

최태규

연결된 감각 안에서 만화, 미술, 문화 기획을 하는 고미랑입니다. 모두에게는 연약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도요. 약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에 기대어 살 수 있을까요? 관계 속에서 힘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예술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7~8년 작업을 꿰어보며 앞으로의 작업계획을 세워보는 포트폴리오 | 20장 내외



연결된 감각 안에서 만화, 미술, 문화기획을 하는 고미랑입니다.

mirangko@Instagram
 miranggun@naver.com



만화 『영등포 시장한 요리』 단행본

작가노트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영등포 시장 일대와 영등포역 뒤 빨간 벽돌길들을 다니며 만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할머니와 만나는 매체는 '요리'였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요리를 떠론 나의 주변인들과 나누면서 '관계에 기반한 서로 돌봄'에 관한 생각을 어렴풋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개개인을 만나며 그녀들의 스토리와 개별적 욕구, 노인이 가진 몸의 특징에 대한 탐구가 저의 만화에 담기엔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시장 하실 때 드시는 음식은 뭐가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각자의 입과 손으로 기억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요리로 풀어줍니다.

<영등포 시장한 요리>는 할머니들의 삶을 살아가며 고생한 일 한 스펀, 외로움 한 스펀, 주변 사람들의 도움 한 스펀, 자식을 향한 마음 한 스펀들이 모여 깊고 개성있고 맛있는 요리가 되어 제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사사이람> 전시전경, 서울시 시민청 갤러리, 2020년



김이태는 정신질환/장애인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사회적 구조를 회화,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한다. 신경다양성을 기반으로 매드 프라이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증상을 캐릭터로 번역한 환상 이야기 [태울 수 있으면 태워서 떠나고 싶습니다: Burn, Pick Up] 시리즈를 통해 창작 세계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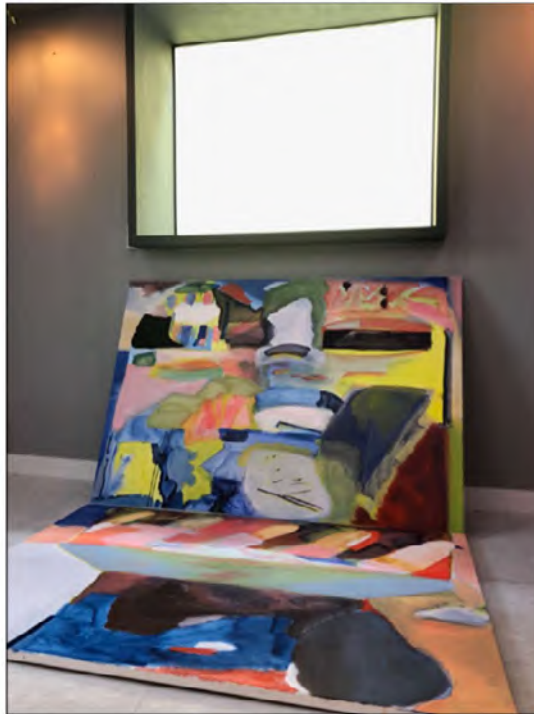
[Burn, Pick Up]은 온 물질이 찢어지는 스펙트럼의 세계관에서 탄생한 다양한 캐릭터들이 주로 등장한다. 그래서 작가의 주 매체인 회화의 형식적 통일감을 형성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2023년, 콜렉티브 'CUH: Chemical Underclock Humans(승비X김이태)' 활동을 시작하며, 장애 전반으로 시야를 넓혔다.

'CUH'는 '감각번역가'를 실천/실험하기 위해 다원예술 전시 <스팟라이트, 평평한 무덤들에게>(2024)를 [Burn, Pick Up] 기반으로 기획하고, 영상 및 회화 창작자로 참여했다. 또한 콜렉티브 'Member Not Members: MNM'(2018~) 등 다양한 창작자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부터 장애 당사자와 협업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콜렉티브 활동 작업 중 개인 작업 중심으로 정리 | 25장 내외

《Small Language Full Language》, RAT, 서울, 2019년_전시전경



우리와 우리의 개인과 개인의 우리와 개인의 야간버스시간
Acrylic on canvas, 130x162(cm), 2018

소설의 미술관은 태양이 밤으로 향하며 새롭게 점령
Acrylic on canvas, 162x130(cm), 2018

《Everyday Tomorrow》, Keep In Touch Seoul, 서울시, 2020년_작품 사진



산만한 집을 취급하는 오래된 방법
Acrylic on Canvas, 1/5x124(cm), 2020

박가란

semodam_craft_art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최근 작업(2023~2025년)을 구조화, 향후 작업 방향을 잡아보는 포트폴리오 | 10장 내외



박가란(b. 1979)은 서울에서 레진 공예를 시작으로 압화, 글라스 아트, 플루이드 아트 등 공방을 운영하며 클래스 위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만들고 표현하는 즐거움이 좋아 손으로 하는 작업의 즐거움과 가치를 함께하고 싶어 클래스를 위주로 공방을 운영해 왔다. 자연을 담고 언제나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을 받고 싶어 주로 그와 관련된 주제로 작업하며, 바다, 파도, 꽃 작업을 가장 많이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액자나 오브제 작업 등도 종종 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표지(기본형) 만들기	타이틀 PORTFOLIO 예술가명(한글)/예술가명(영문) CONTACT(이메일, 홈페이지, SNS)
Q.	A.
<p>표지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p> <p>내가 가져온 포트폴리오 재료들은 무엇인가요? (사진)</p>	<p>홍보물 이미지(포스터 등): 사진(작품 전면 사진, 전시 전경, 디테일 컷) ✓ 글(내가 쓴 글, 타인이 쓴 글): 그 외</p>
<p>포트폴리오 순서를 잡아볼까요?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 해주세요.)</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목차 <input type="checkbox"/> 이력 CV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작가소개글 (1문장-500자 내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 작품 → 최신작 → 구작(부분)</p> <p>시간 순서대로 구성하기 <input type="checkbox"/> 최신작 → 구작 <input type="checkbox"/> 구작 → 최신작</p> <p>작가노르 <input type="checkbox"/> 리뷰, 평론 <input type="checkbox"/> 부가 정보 (예술교육, 기획, 출판 등)</p> <p>주요 시리즈(프로젝트로 정리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 시리즈/프로젝트별 구성 <input type="checkbox"/> 작품 매제일 분리 <input type="checkbox"/> 개별 작품(대표작)에 집중</p> <p>이미지와 글의 관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미지와 글(설명) 혼합 <input type="checkbox"/> 이미지와 글(설명) 분리</p> <p>기타</p>
<p>나에게 이 순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p>	<p>작품의 품격부터 자연병, 주제병 많이 상이하여 유니폼 이미지로 당혹스러운 작품거리 상쾌함있게.</p>
<p>포트폴리오에 해당 요소들을 반영하였나요?</p>	<p><input type="checkbox"/> 글씨체(폰트)와 크기가 일치하나요? <input type="checkbox"/> 이미지와 글 구성(배치)에 통일감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이미지가 다채롭게 선택되었나요? <input type="checkbox"/> 글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는 않은가요? <input type="checkbox"/> 캡션에 작품/전시/발표 정보를 빠짐없이 넣었나요? <input type="checkbox"/> 포트폴리오를 통해 예술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나요?</p>
<p>다음 회차까지 더 보완할 부분은 무엇일까요?</p>	<p>작품 설명 추가</p>

박수진

psjceramic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개인 작업과 그룹 작업을 분리해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제작 | 25장 내외



속삭임시리즈 - 속삭이며 날아가는 영롱하고 낯익은 풍경들

속삭임은 자연의 작은 목소리

도시락
도마 위에서 손끝에서 작은 자연(식재료)을 넘어
끝없이 먼 우주로 확장되는 상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식재료를 다듬을 때 손끝에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자연의 힘,
끓는 보리차의 온기에 떠오르는 진홍 노을과 같이
사과껍질을 따라 쫄쫄기도 하는 등의 속삭임을 따라가는 영롱한 상상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대화하며 느낀 찰나의 감각들은 세상을 더욱 사랑스럽고 따스한 승
결로 남아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줍니다.

박수진

속삭임시리즈 Whisper Series 도시락 pack lunch, c-print, 2024

4



나는 식재료들을 다듬으며 떠오르는 상상과 공상의 풍경들을 세라믹과 회화, 사진을 매체로 작업하고 있다. 내가 보는 것들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았다고 믿는 것들로 재구성하여 일상을 초월하는 순간들을 담아내려고 한다.

그룹 마더니즘Motherism은 결혼, 양육 등으로 일정 기간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팀으로 2021년부터 세라믹, 페인팅, 미디어 등을 매체로 작업하고 있다. 박수진, 박수진(XYZ), 박선영, 진혜주, 나정희, 유은혜 6명의 여성 작가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예술가이자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깊이 탐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월 3~4회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작업 방향뿐 아니라 양육과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에 관해 해결점을 같이 고민하기도 한다.



그룹 마더니즘 정기전
«모든기쁨 Every Single Pleasure»
2025.5.24-6.8 개나리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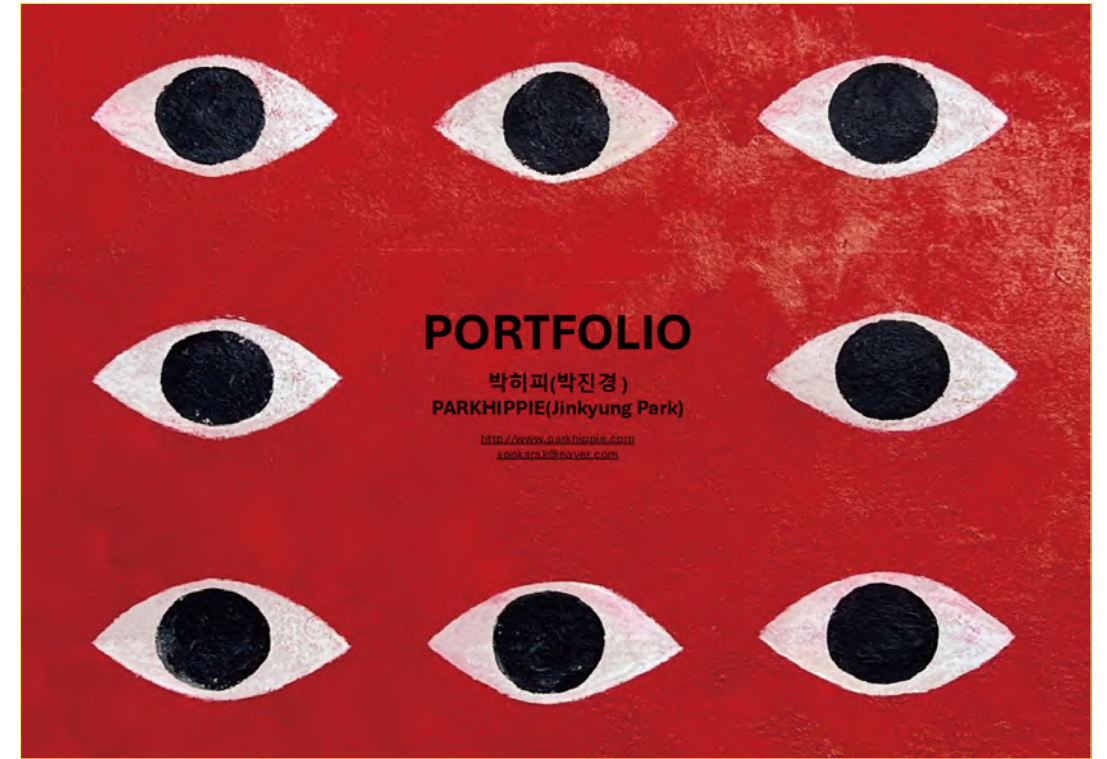
바구니 RGB Basket RGB 시리즈 부분,
세라믹, 각 17x20cm 내외(총 9점), 2025

«모든기쁨 Every Single Pleasure» 전시전경 박수진

박진경 박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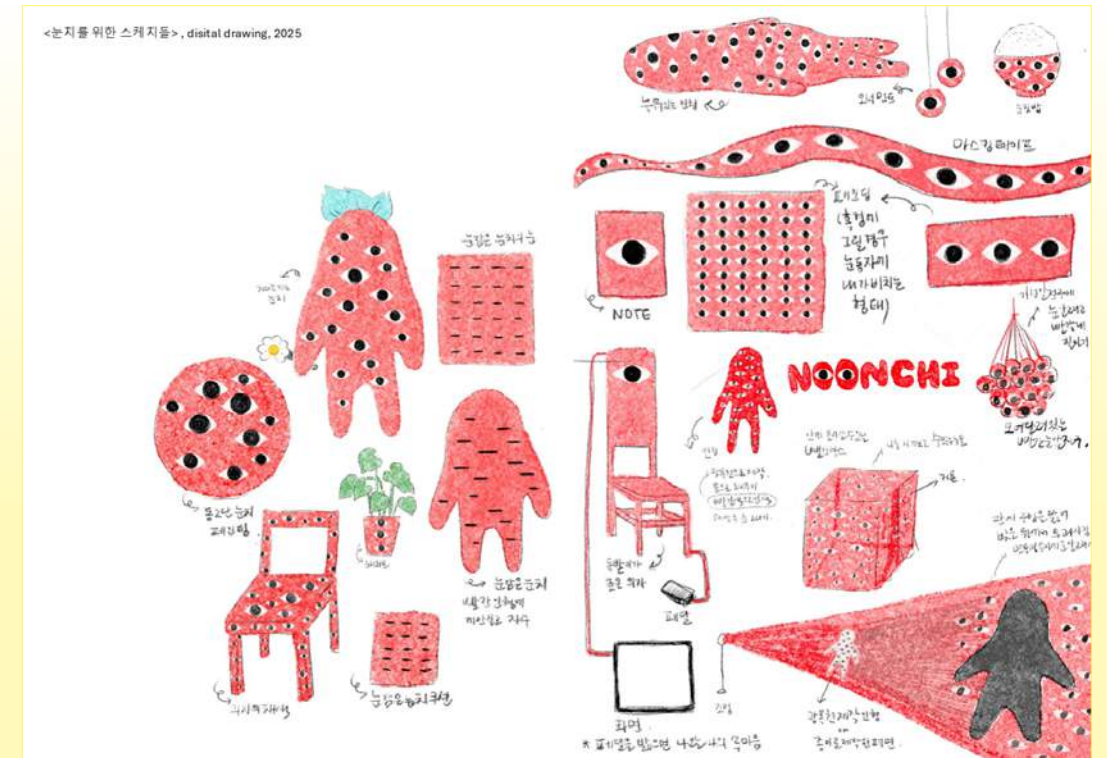
parkhippie.art

박히피는 서울 문래동에 작업실을 둔 시각예술가이자 기획자, 영등포 마을 기록가, 예술 강사이다.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면서 잊고, 숨기고, 미루고, 포기하지만 결국은 드러나는 욕구와 자신만의 색을 발견하고, 엄마의 삶과 작가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감정을 작업에 담고 있다. 유난히 눈에 대해 집착하는 작가는 최근에는 눈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보고 더 섬세하게 감지하는 '눈치'를 만들게 되어, 감정과 욕망을 주제로 한 전시를 준비 중이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창작 캐릭터 '눈치'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 20장



박현주

📷 e_sagak

esagak.myportfolio.com

박현주(b. 1987)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 디자이너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주체와 부체에 대한 주제를 기획과 평면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평면 작업으로는 회화와 판화 그리고 사진, 기획으로는 공예, 그래픽 디자인, 공간 디자인을 활용하여 실리적 예술 활동을 도모한다. 최근에는 예술계 내 관계의 흐름을 읽고, 파편을 모아 세계를 짓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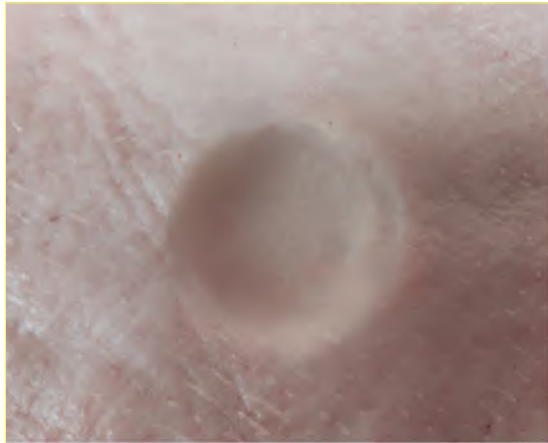
✦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평면 회화작가로서 작업을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 14장

저는 회화로 시작해 공예와 판화를 거쳐, 본격적으로 활발한 예술 활동은 동료들과 기획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현재는 디자인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나'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즌마다 다른 내가 있었습니다. 처음 '낮의 글쓰기'에 지원하고 워크숍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나의 평면 시각예술을 잘 모아보자'였어요. 원래 나의 정체성은 그림을 그리고 판화를 찍는 '작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2025년의 나를 받아들여 보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그 시즌마다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고 싶은 것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매체와 작업의 성격도 변하고 있었더라고요.

언젠가 회화와 판화를 작업하는 작가로 돌아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만 할 수 있는 것이 잔뜩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거든요.

'시각예술 작가로서 작업을 정리하는 포트폴리오'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작업하는 마음가짐'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시는 인간에 의해 배려된 쓰레기(영역의 부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필요와 불필요, 쓰임과 버려짐의 경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존성을 위해 도축되는 동물조차도 부위별로 지분을 받고, 기하에 타어낸 머리와 치발 그리고 혐오, 무뎠을 위한 선택인가? 태연 살갓에 새삼이 온듯 차오르는 성자의 재생을 달의 냉각로 치환한다. 살아가며 사어 사이에 놓치고 있던 우리 안의 폭력성에 대한 단상.

I am not real. 영상 <https://youtu.be/8L8BKqUmdc4>
돼지껍데기의 스킨 사진과 영상으로 편집, 나레이션, 영상, 5:11sec



2001년 이후로 설치그림 마감뉴스 활동을 해 왔다. 산골에서 갑작스러운 도시로의 이주는 어린 나에게 끊임없는 '회귀에 대한 욕망'을 갖게 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일년에 한번씩 갖는 낯선 장소에서, 마감뉴스의 3일의 작업은 호기심과 두려움의 양극의 충돌을 경험하게 했다. 20여년의 야외 설치 작업의 경험의 축적은 깊이 체화되어 도시에서의 자연을 감각하게 하고, 다양한 존재들의 집합체인 '지금-여기'에서의 나의 위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동에 따른 장소 특정적 작업에 대한 설치작업을 이식된 존재로서나, '도시 생존 흔적'의 서사로 풀어 나갔다. 인간은 빈 몸으로 와서 성장하고 '끊임없는 탈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시간의 옷을 짓게 되었다.



이말용(b.1975)은 상주에서 태어나 유년을 보냈다. 자라며 경험한 대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내밀하게 감각된 자연에 기대어 '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이를 조형 언어로 환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관계의 갈등과 인간의 가학적 태도에 문제적 시선을 두고 있으며, 일상의 '다시 보기'는 대상의 관찰과 채집, 집적하는 수행의 과정으로 실천되고 있다.

돼지 껍데기, 커피 찌꺼기, 떨어진 이파리, 나무껍질, 돌멩이 등 자연적 재료에 나의 에너지를 덧대어 삶과 죽음이라는 숙명,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불안, 기억과 소멸과 같은 공허에 대한 단상을 잠시 머무는 외피의 형상으로 이 시대의 아이러니를 질문하고 있다.

✦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최신작 중심으로 작가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 25장 내외



표피, 커피, 풀과 버섯 등, 캔버스, 260x162x3cm, 2024

이명숙

lee_myongsook

이명숙(Lee, Myeongsook)

나는 '창(Window)'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회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 이명숙이다. 내게 있어 창은 단순한 건축적 장치가 아니라, 이상과 현실, 안과 밖의 경계를 형성하는 상징적 매개이다. 화면 속 창을 통해 나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풍경들을 마치 이상이나 꿈처럼 구성하며, 현실 너머에 대한 동경과 내면의 욕망을 회화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창은 바라보는 시선과 그 너머의 풍경 사이에 존재하는 틈이며, 나는 그 틈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거리감과 낯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한다.

일상적인 장면일지라도 창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다시 바라볼 때, 그 안에 내재된 감정과 기억이 환기되기를 바란다.

나의 작업은 그렇게 현실과 이상, 내부와 외부가 맞닿는 경계 위에서 회화가 가질 수 있는 감각적이며 존재론적인 깊이를 실험하고 있다.

<창2103 / Window2103>, 45.3×38cm, Oil & mixed media on canvas, 2021



2



<창2207 / Window2207>, 80×116cm, Oil on canvas, 2022

7

나는 '창(Window)'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회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 이명숙이다. 내게 창은 단순한 건축적 장치가 아니라, 이상과 현실, 안과 밖의 경계를 형성하는 상징적 매개이다. 화면 속 창을 통해 나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풍경들을 마치 이상이나 꿈처럼 구성하며, 현실 너머에 대한 동경과 내면의 욕망을 회화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창은 바라보는 시선과 그 너머의 풍경 사이에 존재하는 틈이며, 나는 그 틈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거리감과 낯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한다.

일상적인 장면일지라도 창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다시 바라볼 때, 그 안에 내재한 감정과 기억이 환기되기를 바란다. 나의 작업은 그렇게 현실과 이상, 내부와 외부가 맞닿는 경계 위에서 회화가 가질 수 있는 감각적이며 존재론적인 깊이를 실험하고 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개인전을 열 때 전시장에 비치할 포트폴리오 | 25장 내외



<창2304, 2305, 2306, 2307 / Window 2304, 2305, 2306, 2307>, 116.8×321.2cm, Oil & mixed media on canvas, 2023



2024.3.19-5.26. / SHOWCON전시전경 / 오산시립미술관

12



이순아

studios.ceramic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나의 작업에 대한 정리
15장 내외

저는 도자기의 물성과 전통 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물레 성형부터 유약 조합, 소성, 청화 장식에 이르기까지 도자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화백자의 조형성과 회화적 표현에 주목하며, 표면 장식의 전통적 기법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통 청화 기법을 중심으로 장식의 바탕이 되는 소지에 변화를 실험하고 새로운 문양을 연구하고, 도자 장식 도구의 한국화에도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쓸모라는 공예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전달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공예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작품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공예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실천적 작업을 함께 전개 나갈 계획입니다.

< 청화 전용 붓 : 청화백자 필간 / Brush with a Blue-and-White Porcelain Handle > (2024--)

공예가 협업: 필장 전상규



도자기에 청화를 그리기 위한 도구인 붓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전통 붓 제작 수업을 통해 필장 전상규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없었던 청화 전용 붓. 넓은 면에 청화를 올리기 위해 안료를 머금기 적합한 털을 고르고, 이에 어울릴 금강산이 그려진 청화백자 필간(筆竿)을 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전통 붓 장인과 도예가의 손길을 통해서 현대에서 한국의 청화 전용 붓을 만들었습니다.

청화백자 청화붓, 2025
물레, 백자, 사슴털, 1250°C, 환원소성, 허회장식, Ø30x200(mm)

이승민(b. 2004)은 서울, 경기도, 세종을 오가며 사람과 감정의 결을 주제로 영상 기반의 시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군중 속에서 살아온 시간은 그에게 감정의 복잡한 층위를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관계에서 출발한 그의 작업은 일상의 감정, 말하지 못한 정서, 누적된 시선들을 기록하는 데에 집중한다. 영상, 일러스트, 소설 등 매체를 넘나들며 개인의 이야기가 관객의 이야기로 번역되는 장면을 꿈꾼다. 공감은 이해로, 이해는 변화로 이어진다는 믿음 아래, 그는 시각 예술이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감각의 언어이자 윤리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결핍의 양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감정의 층위로 풀어내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기획 중이다. 단지 물리적 부족함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놓인 거리, 애써 감춰온 감정에 남겨진 정서까지 포괄한다. 앞으로도 감정의 미세한 결을 시각적으로 길어 올리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개인 취업용 포트폴리오, 그리고 작가로서 나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 13장 내외

낮의 글쓰기 1

내가 왜 개인을 하던 하냐?

D <자기계> (음)
2) 각자 본 용어 재정의
↳ 의미상, 의미상, 인식상 등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자기 점검 리스트

✦ 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 없다.

1. 대학교 부원생 (경력,) 이 정도... / 근데 너무 야매로 서클을 해서ㅠㅠ... 러플하고 크롭하다.
2. 대외활동.

✦ 내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때

1. 내년 2026 (2025 하반기) 인턴 아 취업 예정.
2. 대학교 부원생 경력.
3. 관련 애니메이션 거릴 땐 활동에서 디벨롭. = 관련 애니메이션, 클립만화

신이라 정리하지 않고 유문 → 글 잘 읽음

✦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1. 컨셉. ← '4'을 디자인 컨셉과 시키는 것이 어렵다.
2. 강요 및 적당히 짜기
3. 강요도.

신인 것이라 양자는 양면만 앞뒤와 애니메이션을 하는 나만의 작업을 정리하고 싶다.

✦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목적

취업 및 나 홍보하기...
↳ ① 개인으로서의 '4' ② 작가로서의 '4'

↳ 관련 증언은 카툰에서 앞으로 방향성 대조권

✦ 내가 [낮의 글쓰기]에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가장 먼저 받아볼 3명(곳)

1. 회사들
2. 대학교
3. 각종 대외활동
4. 대학생 전시공간. (다 포폴이 필수라.)

✦ 내가 이번에 만들 포트폴리오의 분량

적어도 _____ 페이지, 많으면 _____ 페이지

↳ 분량도 길어야?

↳ 20페이지가 기본

10-13장

- 1. 해로 것 2. 3로 것 3. 4로 것

이현정

lee_hyeonjeong73



PORTFOLIO 2025
이현정 / LEE HYEONJEONG

이메일: lee_hyeonjeong73@gmail.com
웹사이트: www.lee_hyeonjeong73.com
인스타그램: [lee_hyeonjeong73](https://www.instagram.com/lee_hyeonjeong73)

《숨 / Breath》 (2020-2025) 퍼포먼스 / 2022성진강 국제 실험예술제 / 재일섬



숨-이미심장 / Breath-Heart, 트래젝션 심장, 2022

이현정(b.1973)은 2018년 얼어붙은 강 위에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설치, 퍼포먼스 《숨-길》을 시작으로, 감정과 존재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부터 본격화한 ‘김치 시리즈’는 발효의 시간성을 통해 자아와 여성성, 한국적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작업으로, 2024년 후쿠오카 아트 어워드 우수상을 받으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김치는 작가에게 자화상이자 생명의 은유이며, 발효라는 생물학적 변화는 곧 삶과 기억, 고통의 치유 과정이다. 회화, 퍼포먼스, 설치, 텍스트를 넘나드는 작업은 여성성과 신체성, 억압된 감정, 침묵과 회복을 언어 이전의 감각으로 표현하며,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기억과 연결하는 예술적 실천으로 확장된다.

✦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대표작 10점을 중심으로 제작한 포트폴리오 | 13장 내외

《김치 Kimchi》 (2022-2024)

회화 / 아미미술관



아미미술관 전시 전경,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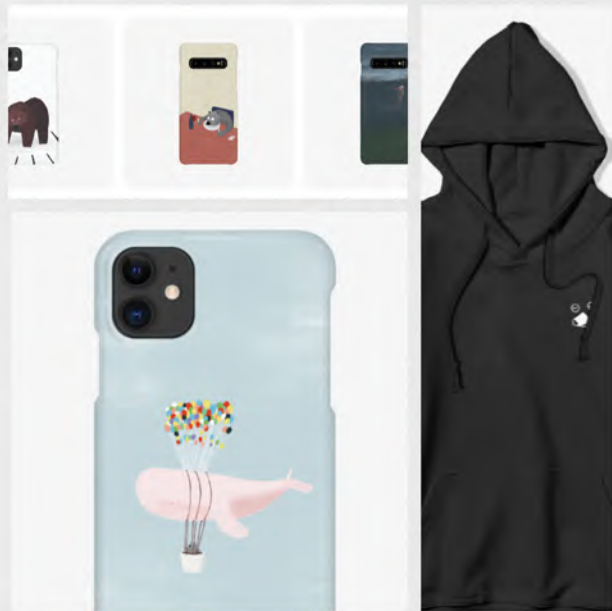
장세인 조화로운 삶

Instagram jowhalounsam

꿈을 통해 사람들의 외로움과 마음의 빈자리를 이야기하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가 상상하는 꿈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처럼, 사람이 되기 위해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모습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의 마음속 부재함을 마주하고, 스스로 조금씩 편안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전시 공모 사업 제출용 포트폴리오 | 20장



조화로운 삶
Illust Goods

마플샵

<https://marpple.shop/kr/jowhalounpsalm>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부족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이나 부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말한다. "당신, 우리, 괜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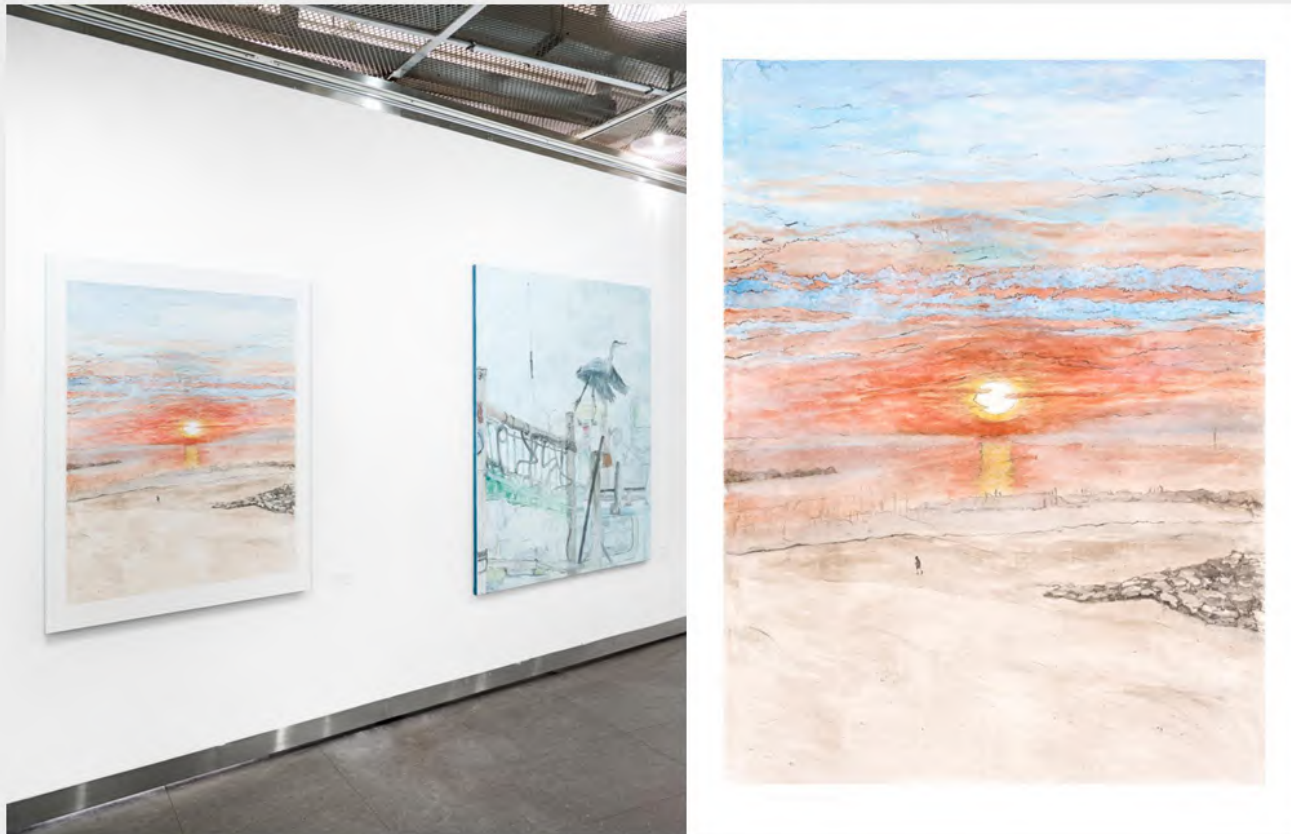
조윤아(b. 1997)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로, 세상을 떠난 존재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회화 작업을 선보인다. 그의 작업은 가까이 마주한 사물 혹은 멀찍이 바라본 풍경을 통해, 이별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미묘한 감각과 잔잔한 기억의 흔적을 포착한다.

한지 위에 직접 제작한 토분 페이스트^{Kaolin Paste} 물감을 사용하여, 바래고 흐릿해진 기억처럼 부드럽고 옅은 색으로 화면을 섬세하게 채워낸다. 떠난 이를 추모하듯 현재의 순간을 마련하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세심하게 모아 그 안에 감정의 깊이를 담은 장면들을 조용히 배치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고요하고 깊은 위로의 형식으로 이어진다.

✦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국내 레지던시 지원을 위한 포트폴리오 | 15장 내외

《어느 날 우리는 안녕을 말할거야 Someday, We'll Say Farewell》 성신여자대학교 난향관 파이룸 (2025)



지평선 너머의 이야기 A Story Beyond The Horizon, 장지에 토분 페이스트, 130.3×97cm, 2024

《3인칭 지구》 노들갤러리 1관, 서울 (2023)



(좌) 풀의 무덤 Grave of Grass, 장지에 토분 페이스트, 162.2×224.2cm, 2023

(우) 마주보며 서 있어 Between Me & You, 장지에 토분 페이스트, 130.3×193.9cm, 2023

조혜은

ela12121126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사회는 우리 집도 피해 갈 수 없었다. 나에겐 70대 엄마와 90대 할머니가 계신다. 엄마가 할머니 돌봄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다. 엄마는 조금씩 몸과 마음이 시들어갔고, 할머니도 자기 외동딸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랐다. 가족 외에 믿을 만한 시스템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를 보호할 공간을 찾아봤지만, 마음에 들면 엄두도 못 낼 값비싼 곳이거나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켜 버릴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를 위한 안전한 요양원을 찾는 과정에서 노인의 삶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만난다.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복지의 사각지대, 부족한 공무원의 인력난으로 해마다 놓친 수많은 생명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할머니를 위해 고생한 엄마를 해방시키고 늘어지고 느슨해진 복지 그물망에서 촘촘하고 안전한 테두리가 되어 줄 나의 캐릭터 미래를 만들었다.

어느 날 할머니와 패션과 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춤에 대해 잘 모를 거라 확신해 나는 “설명해 줘도 몰라, 할머니는.”이라고 말했는데 할머니는 “바닥에서 춤을 추며 손을 짚고 다리를 올리는 거? 맞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할머니는 춤의 명칭은 모르지만, 브레이크 댄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모를 거야.’ 했던 생각은 나의 편견이었다.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 6·25전쟁에서 살아남고 20-21세기 약 100년의 문화와 사회를 모두 겪은 인물이다. 시대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패션도 돌고 도는 것처럼 할머니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었다. 나도 40대가 되니 사회에서 은근히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미술 공모나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것에 불편했다. 이름을 묻기 전에 나이 먼저 물어보거나 작업을 보기 전에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이 상황에 기분이 상하기도 했다. 나이에 맞는 취향이나 생각이 정해져 있는 걸까? 그런데 말이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제출 목적에 따라 분량을 조절한 포트폴리오
 2가지 버전 | 10장 / 15장



<미래>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기 전 사물의 문화를 배우지 않은 위험한 단계 : 몬스터 가족, 페브릭,철사,돈 외, 160cmX 40cm등 가변크기,2024
 진화하는 모습을 털갈이하는 모습으로 담았다. 각 오브제 마다 이름이 있다.
 예를 들면 빅몬스터, 털갈이중

PORTFOLIO

최태규
CHOI TAEKYU



최태규는 서울 번두리 출신의 예술가 호소인으로, 자신이 하는 행위 일체를 예술이라 착각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겠다며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다. 예술과 관련한 전공을 하지 않은 무지렁이로 '제조업 종사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를 물질이 세계와 관계 맺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의 작업을 주로 형태가 없는 물질들의 물질성을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물질적 욕망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위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혹은 개인의 서사를 물질적 특성을 통해 구현하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했나요?

더 많은 작업 발표 기회를 얻기 위한 공모 제출용 포트폴리오 | 1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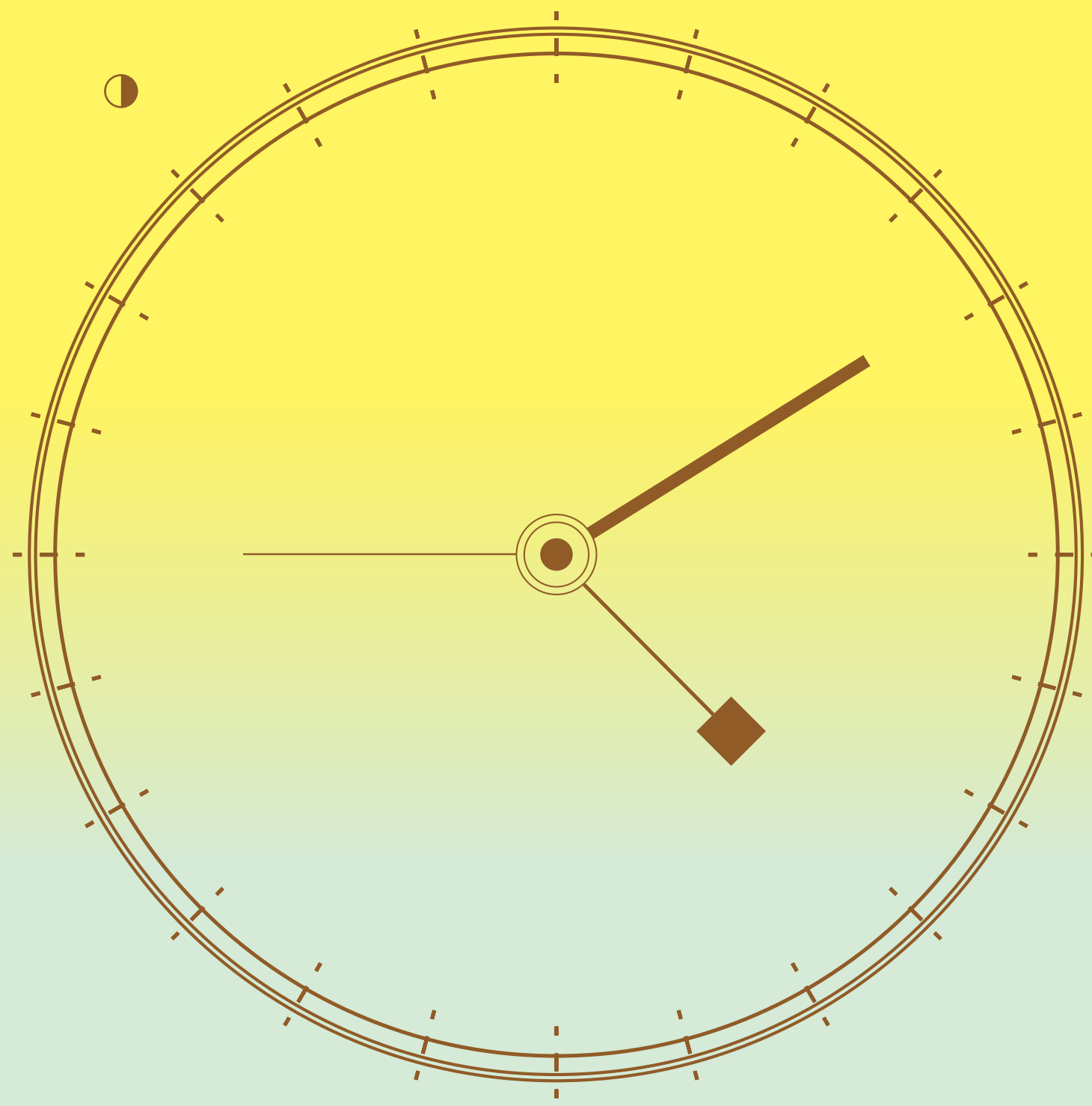
말초적 본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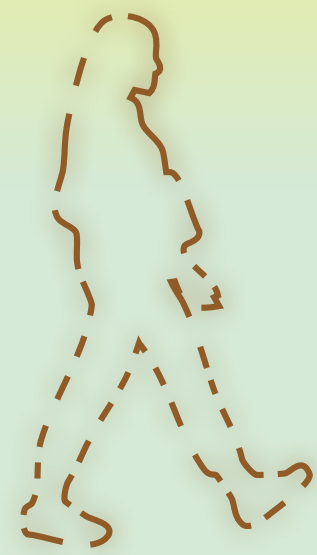
2021-연방 오븐스튜디오
고려의 문인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전집에 나오는 시 중
"죽음이 높은 푸른 비취 밑에 피착했는데
은염에 향을 사르고 밤이면 문을 닫는다.
라는 구절에 나오는 방황법인 "계곡향법"을 소개하고
향의 재료가 된 약재를 모아 향낭을 만드는 브로젝트를 시민들과 함께할

노동력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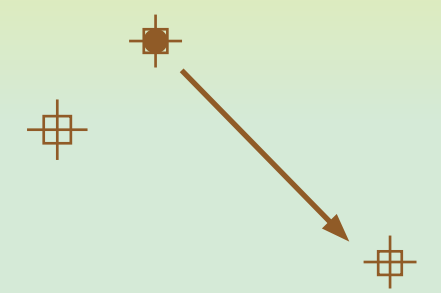
- 나의 공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오랜 꿈이었어요.
- 그래서 물건이 너무 싸고, 너무 흔하고, 너무 만만하지만, 오히려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어지고 어떻게 좋은 물건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 우리는 진짜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어떻게 좋은 물건이고 그 물건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쓰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물건을 만들면서 깨닫게 되는 삶의 자세가 사람들을 달라지게 할거라고 믿어요.
- 그래서 노동과 생산의 과정을 통해 파생되는 성찰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2025년 4월부터 알봉을 배우고 직접 굶을 재밌하면서 그 과정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일성을 굶을 재밌는 일법들을 관리하고 어왕법을 만들고 법봉을 누리면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 노동을 통해 물건을 만드는 것이 물질을 통해 세상과 관계 맺는 과정임을 증명합니다.
- 이제 우리는 더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그냥 저냥 쓸만한 물건들을 수입해 옵니다. 공장에 가면 "공부를 못해서"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는 아무도 물건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아요.



“작업을
계속해 보고 싶은데,
기회를 만들려면



작업을 해온
기록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낮의 글쓰기 참여 예술가 최태규

밤의 글쓰기

김다원^{다원}

김태희

나상영^{진진}

박한내^{루루한내}

시원한형

양승주

유재윤

유형주

윤성희

이산하

정승혜

정주하

조은영^{dalnurilab}

주보람

한미주

✦ 나의 리서치 맵



나는 만화의 장르 문법을 탐구하며, 우연히 마주친 인지 부조화의 경험과 기억을 주요 모티브로 삼아 회화와 설치 작업을 풀어내고 있는 시각예술가다. 삶의 다양한 문제를 동물, 괴물지, 엠블럼이 함께 모핑된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현재는 버거울 수 있는 삶의 과정을 직면하게 하고, 그로부터 더 나은 가능성을 되뇌는 순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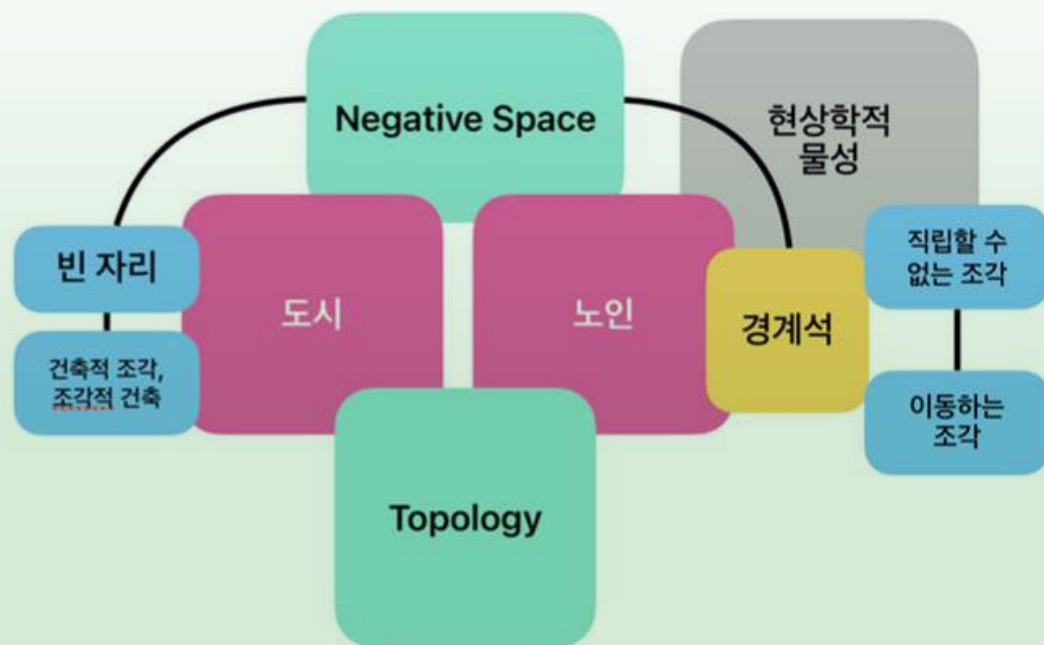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변질되는 펜을 주재료로 한 밀도 높은 드로잉은, 각 재료 간의 합과 상충에 따라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감각을 시각적으로 활성화한다. 지지체와 펜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서 비롯되는 활력은 기억과 감정이 뒤엉킨 동시다발적 상황을 고스란히 화면에 배어 나오게 하며, 동시에 쉽게 왜곡되고 휘발되는 재료의 특성은 인간이 지닌 본연의 불완전성과도 닮아있다.

무언가를 '그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망치기도 하며, 다시 수습하고 재건하는 반복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드라마와도 비슷하다. 나의 작업이 인쇄 만화 부흥기 특유의 '그림에도 불구하고'라는 기조를 참고하는 이유 또한, 앞서 말한 그리는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같다.

김태희는 10여 년간 친할머니댁에 거주하며 할머니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스스로를 할머니의 이름을 딴 ‘이임섭 레지던시’의 작가로 명명하고, 노인 세대의 노고를 기리거나 이들의 쓰임을 재고할 수 있는 작업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위상을 재개발이 진행될 거주 지역의 특징과 중첩하여 이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중이다.

건축가와의 협업으로 도시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Point Cloud Data)로 기록하고 있으며, 오래된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경계석과 지역민의 특징을 더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조각,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이동할 수 있는 조각을 실험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 지역의 수호신 영등할망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인터랙티브 XR 게임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이제 곧 사라질 도시와 삶의 끝자락에 가까운 어르신의 면면을 내포하는 작업을 통해 시대의 단면을 기록하고, 이를 둘러싼 논의를 관객과 공유하고자 한다.

✦ 나의 리서치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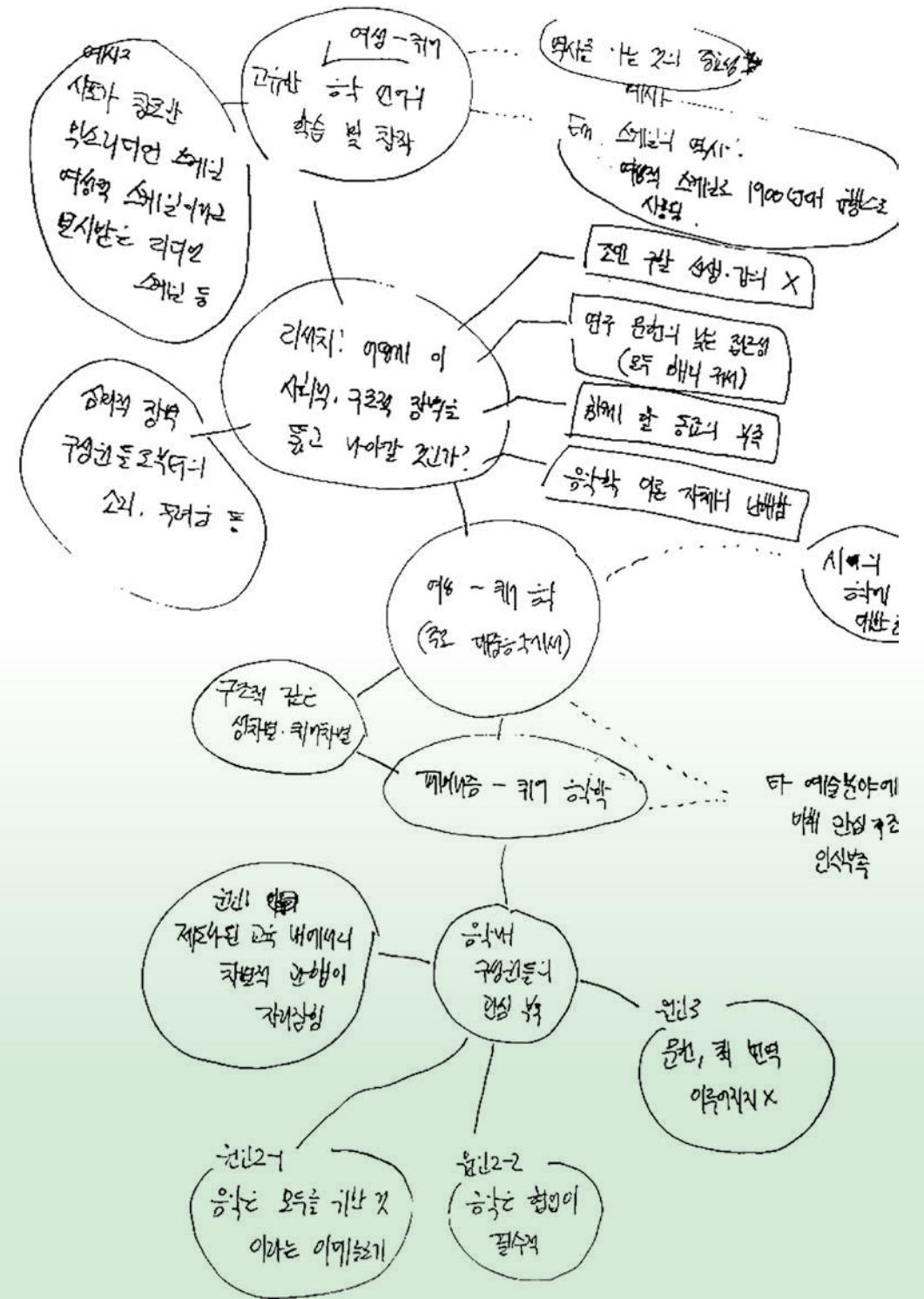


진진은 주로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가로, 이름없음 - 현은 - o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업으로서의 예술가를 둘러싼 여러 여건 및 환경 내에서, 어떠한 작업을 노출할지 등의 전략을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름을 쓰게 되었다.

공연예술, 특히 음악에서의 여성(페미니즘) - 퀴어적 표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 예술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고 아주 가끔 글을 쓰기도 한다.

미술에서 배운 리듬 등을 통해 어떠한 풍경이 그려지는 음악을 만들려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미술 및 음악 등 여러 곳에서 얼굴을 비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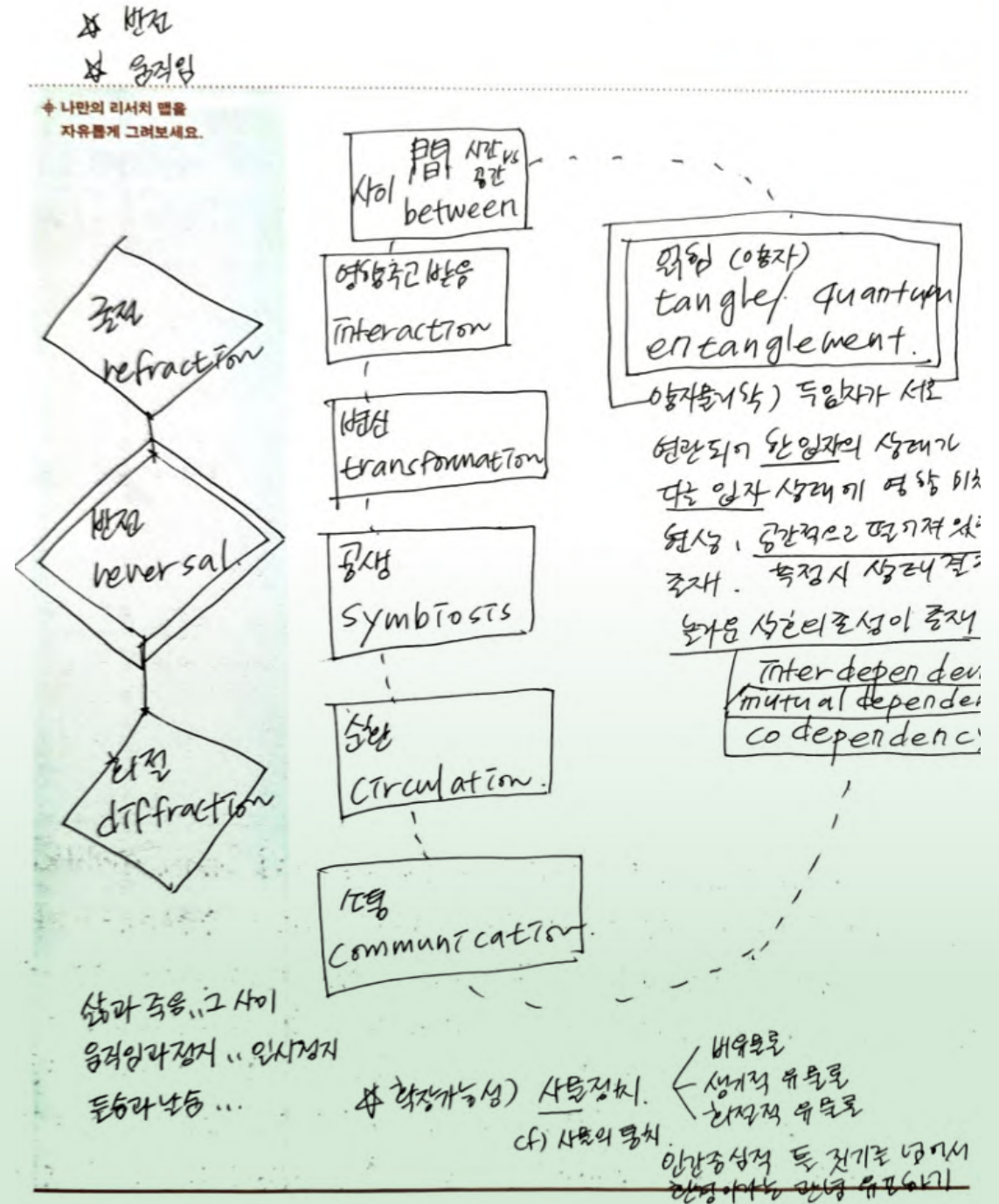
✦ 나의 리서치 맵



대도시에서 실존하는 유기체들의 일상적이고 표면적인 소통 너머에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인터랙션에 관심이 있는 평면 회화 작가, 루루한내입니다. 평소 작가와 작업은 드러나 있는 세계뿐 아니라 가라앉아있는 심층의 부분과의 연결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문명과 그 속의 (인위적) 자연 공간 그 '사이'에 존재하는 유기체들의 '공생과 변신', 그들의 '엇갈린 소통'을 모티브로 작업 중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밀려난 존재, 유령으로 취급받는 노숙자, 히키코모리, 경단녀, 심신미약자, 도시에 길들여진 야생동물, 방치된 낡은 공간 등을 통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과 사물들, 경관을 조망함으로써 이 시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담담히 그려내 보고자 합니다.

나의 리서치 맵



시원한형

📷 redefinework

linktr.ee/redefinework

나는 음악, 문화 기획, 영상, 워크숍, 연구, 글쓰기 등 매체와 장르를 넘나들며 노동, 예술, 운동의 교차점에서 '일'하며 존재해 왔다. 나는 쉽게 자신을 전문가나 직업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세상에 기능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니트(NEET)였던 것처럼, 나는 작곡과 노래를 못하는 음악가이고, 촬영과 편집을 못하는 영상 제작자이다. 문법과 맞춤법을 늘 틀리면서도 글을 쓰고, 대학 졸업장 없이 연구한다. 또한, 사업으로 부자 되는 방법을 여전히 모른다. 나는 언제나 사회가 요구하는 '상품화된 기능인'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미끄러져 왔다. 그럼에도 나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창조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나의 리서치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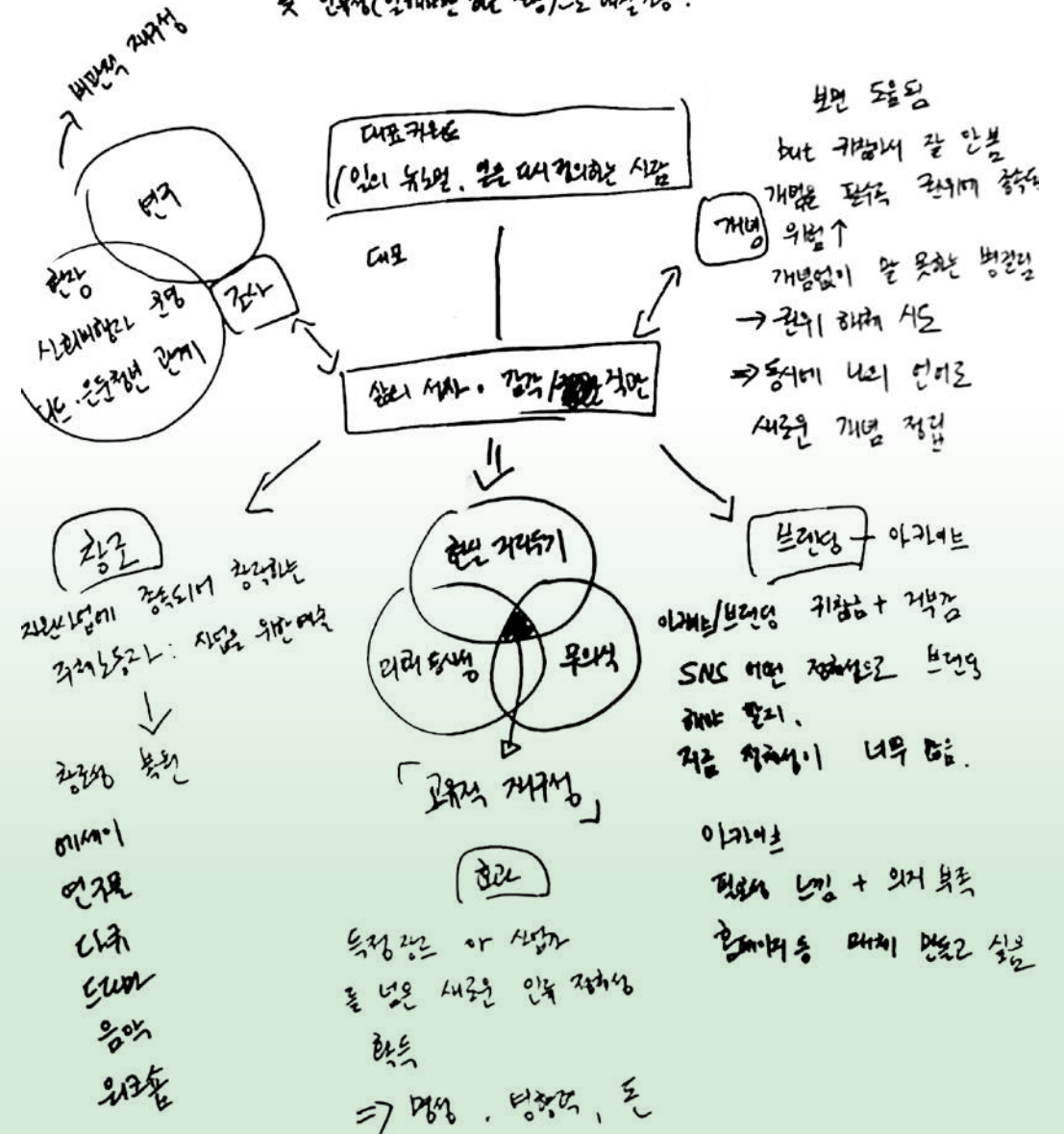
(학동시대 이전)

네.이.은 / 노동 및 여성 문제 / 우울. 자살
 단정하게 함께 / 기록하기

블로그

좋은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 평범한 노동
 및 인문학(인문학이란 무슨 상?)으로 해결 가능?

시원한 형



♣ 나의 리서치 맵

핵심 탐구 영역: 근원과 비물질적 차원 탐색

1. 초월적 경험과 몸의 기억 연구:
 다도 중 초월적 경험: 현상학적 접근 (경험의 본질과 구조).
 몸에 각인된 기억과 원형: 심리학적, 과학적 접근 (기억의 형성, 무의식, 몸의 원형개념).
 통증과 기억의 연관성: 통증이 예술적 영감으로 발현되는 과정 연구.
 키워드: Purity, Ungrund, Archetype.

2. 물질의 비물질화와 공간-시간의 재개념화:
 비물질화의 철학적, 예술적 의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물질의 비물질화 시도 연구.
 퍼포먼스에서 몸의 현존과 진동: 몸을 통한 강력한 표현 수단으로서의 진동과 움직임 분석.
 느린 동작과 질감: 시간성, 존재론적 의미 탐색.
 키워드: Space, Time, 가변성, 유동성.

ii. 작업 확장 영역: 몸의 다양성과 상호작용	1. 발달/지체 장애인의 몸 리서치 (2018년 이후):	제한된 움직임 너머의 감각과 진동: 신체 다양성에 대한 이해.	정서, 미학적 표현, 관계 맺음: 비언어적 소통 방식과 예술적 표현 가능성 탐구.	키워드: Connection, Tactile.
iii. 실천적 리서치 방법론:	1. 솔로 즉흥 연주 (Solo Improvisation):	몸으로부터 텍스트 탐색: 신체적 즉흥성을 통해 내면의 서사 도출.	몸의 움직임을 통한 기록 및 분석: 움직임 패턴, 감각의 변화 기록.	2. 오브제 실험 및 시각적 내러티브 구축:
	다양한 오브제 실험: 정동, 이미지 생성과 시각적 내러티브 탐색.	오브제 활용: 구멍 및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의 시각화.	*관찰 및 실험 (Observation & Experiment): 2D와 3D가 만나는 시간의 교차점 탐색.	

퍼포먼스 작가 양승주는 23세에 사찰에서의 다도 중 경험한 초월적인 순간을 예술적 여정의 시발점으로 삼습니다. 4년 후, 즉흥 작업 과정에서 다시금 떠오른 이 강렬한 신체적 기억은 그녀의 예술세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양승주의 작업은 몸의 기억과 감각을 매개로 자아, 존재, 그리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그녀는 몸의 현존과 진동을 주요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물질, 신체, 공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의 비물질화를 시도합니다. 퍼포먼스에서 발현되는 느린 동작과 섬세한 질감은 시간과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중요한 미학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2018년, 발달장애인과의 만남은 양승주의 작업 지평을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한된 움직임 너머 그들의 몸이 지닌 고유한 감각과 진동에 주목하며, 감각에 기반한 주체와 객체, 그리고 환경의 상호작용과 관계 맺음에 대한 질문을 심화합니다. 이 과정은 작가에게 몸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며, 그녀의 예술적 탐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 개념화 및 언어화 작업	작업에 대한 언어적 개념화: 모호한 경험과 감각을 명료한 언어로 정리.	지속 가능한 리서치 로직 구축: 작가만의 창작 언어와 탐색 과정 발전.	2. 학제적 리서치.
심리학, 과학, 철학 이론 집목: 작업의 깊이와 폭 확장.	동시대와의 상호작용: 주관적 세계의 창작이 동시대 안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 탐색.	'피와 살이 되는' 리서치: 리서치 자체가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내재화.	3. 한계 인식 및 극복.
	자료의 한계 인식: 참고 자료가 내비게이션보다는 '거울'의 역할을 인지.	답론의 한계 극복: 창작 자체의 방향을 운반하는 리서치 방법론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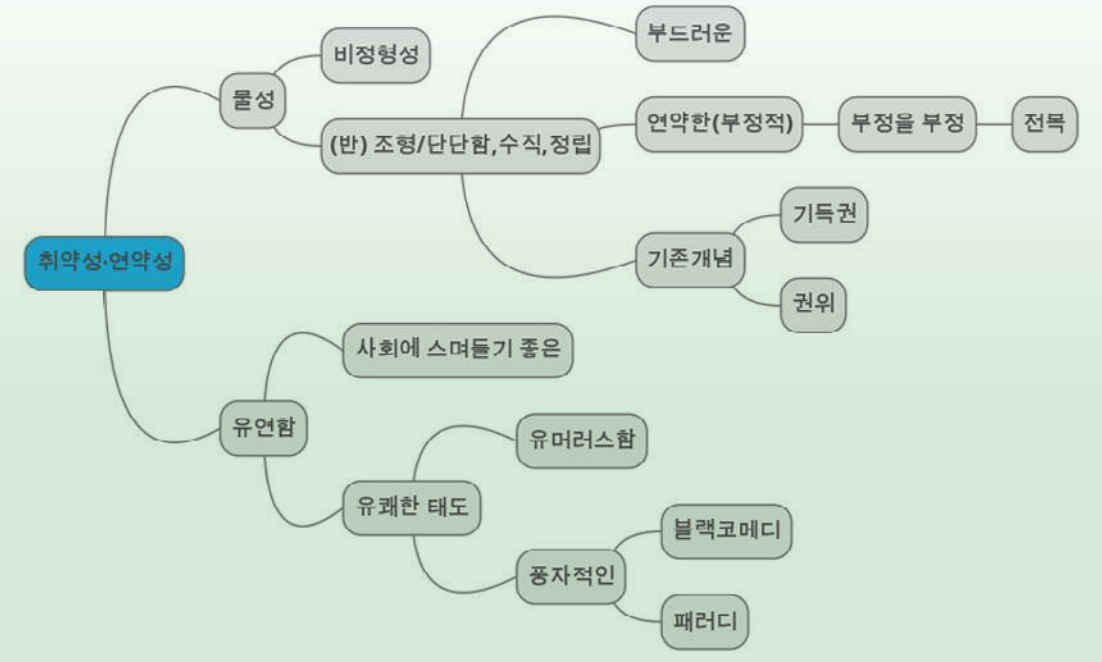
유재윤

Instagram: yoojaeyoon

Be: yoojaeyoo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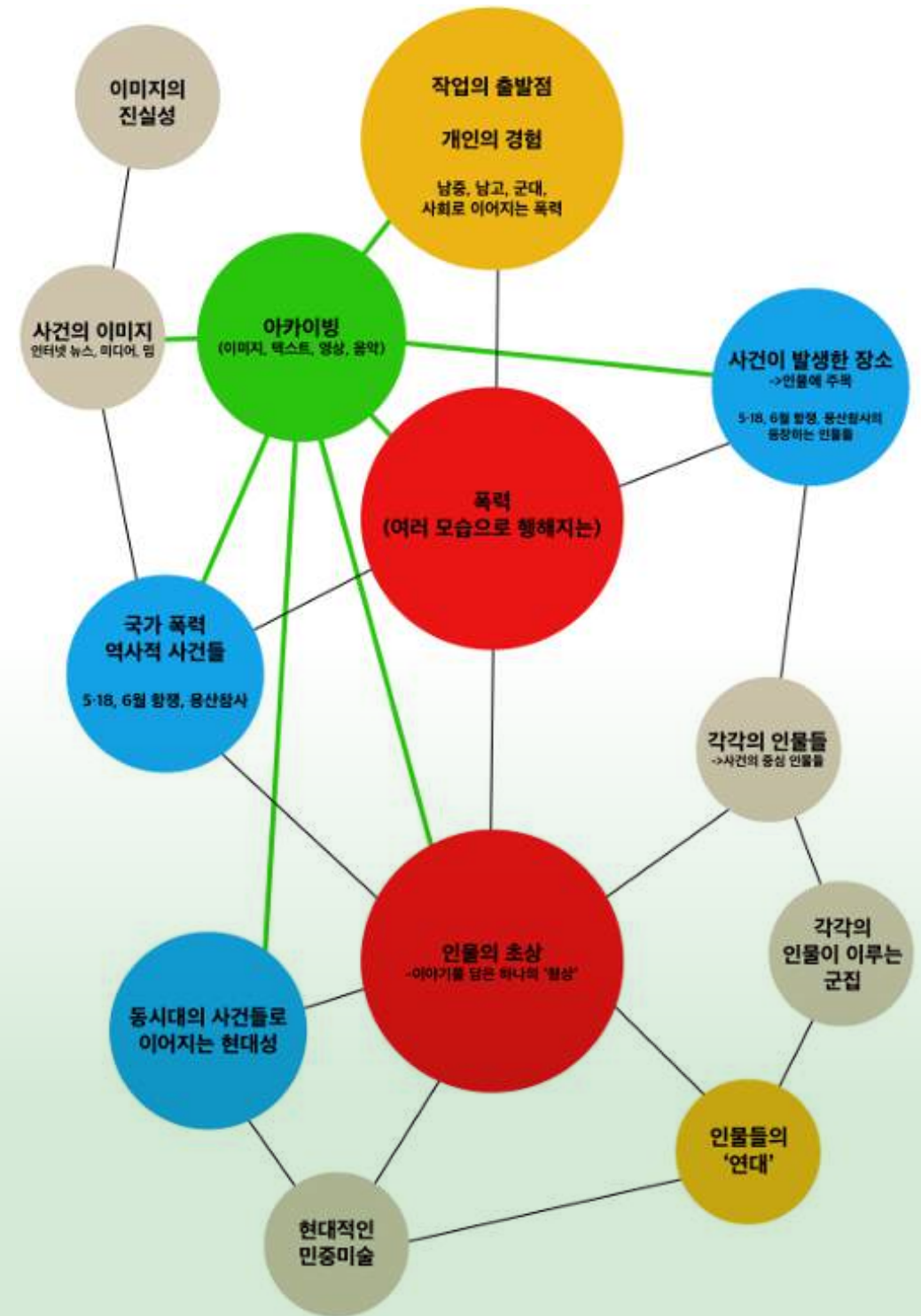
나는 유연한 재료가 가진 취약하고 연약한 물성을 손바느질이라는 노동 집약적 제작 방식으로 세워내고 있다. 기존 조각 개념에 반하는 유약하고 취약한 물성을 이용하여 기존 개념에 대한 전복을 꾀하고자 한다. 이는 초 노동집약적이면서도 생산성이라고는 없는 손바느질을 통해 약하고 느리고 생산적이지 못한 시대에 맞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재 사회의 모습에 구조적 질문을 던지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한 표현으로 권위의 상징인 트로피를 세워 기득권적 권력구조, 그에 반한 주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선 등 현대 삶에 대한 비정형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작은 저항의 실천이며 행위의 과정이다.

✦ 나의 리서치 맵



유형주 작가의 작업은 납중, 납고, 군대 등 남성 중심 집단 안에서 겪은 위계와 폭력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이후 5·18, 6월 항쟁, 용산참사 등 국가나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에 주목하며,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관심이 옮겨졌다. 작가가 그리는 초상은 실제 인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서사와 감정을 담은 하나의 형상이다. 이 형상들은 하나의 인물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군상을 이루며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 나의 리서치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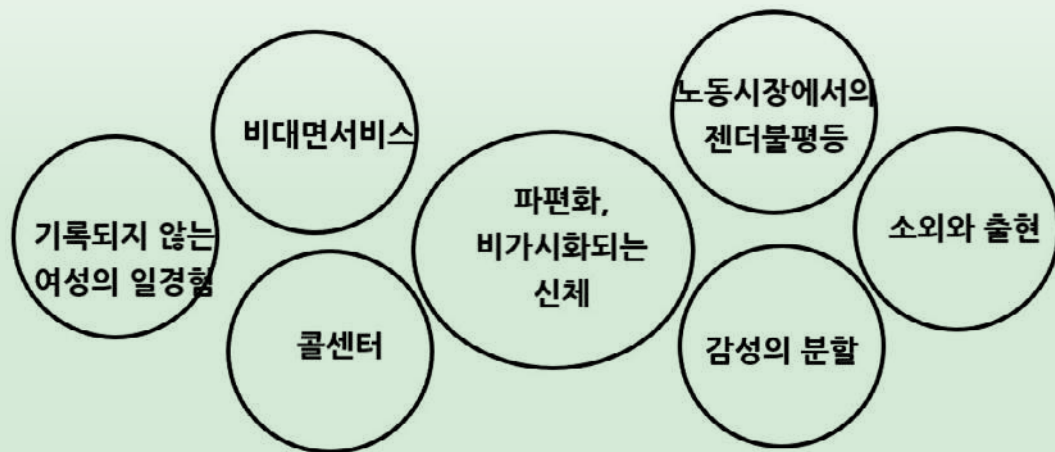
윤성희

📷 yoons_graphy

📌 pictureinb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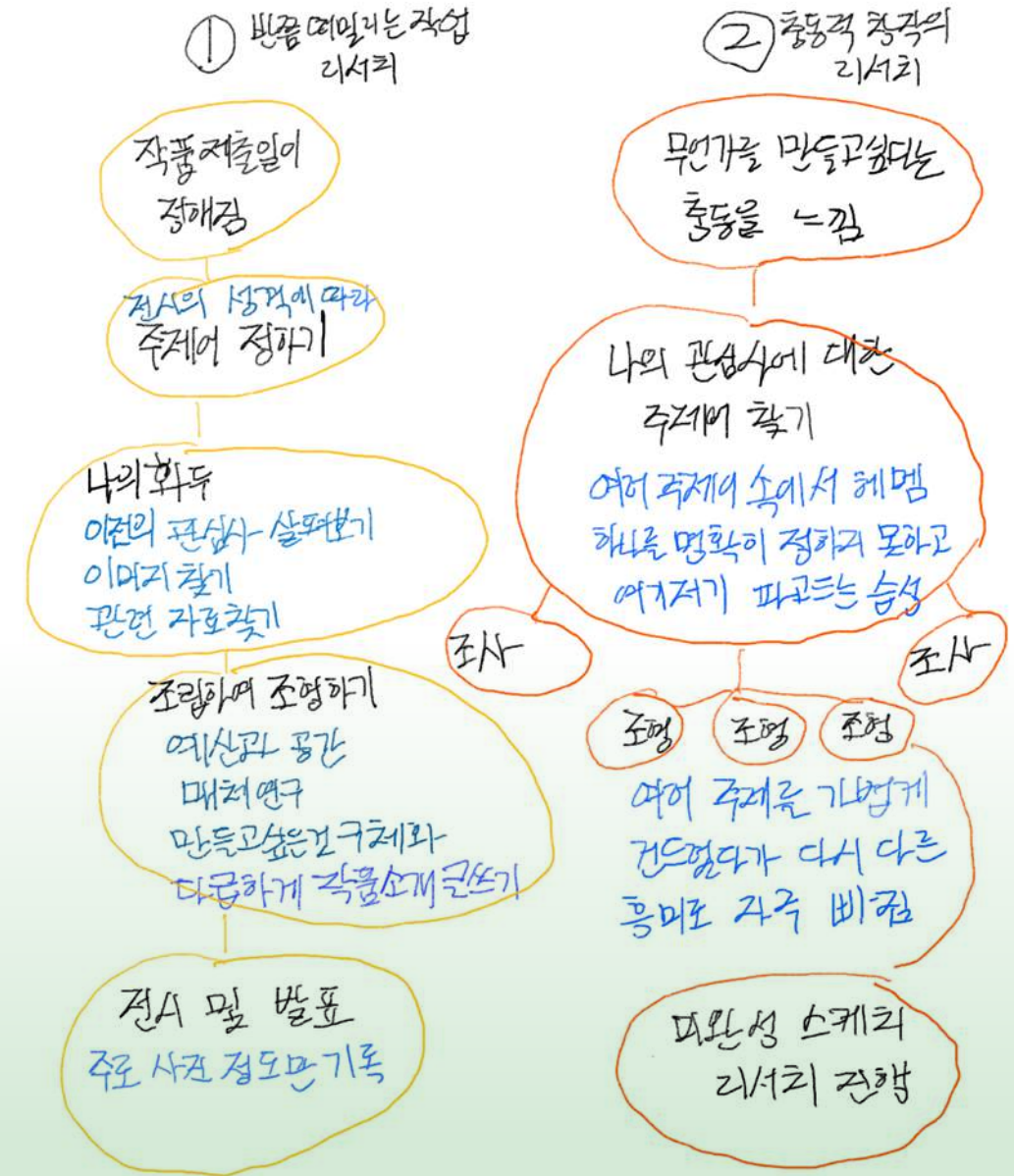
윤성희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진가다.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는 몸들, 노동자나 여성 등 '있지만 없는' 몸들과 그것이 드러나고 장소를 접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에 주목한다. 리서치와 필드 워크에 기반한 글쓰기와 사진으로 수집하고 서사화하며 기록한다. 말해지지 않는 산업재해들의 기록, 재해와 망각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 현장의 풍경을 담은 사진책 『표지 없는 지도와 지워지는 사진들』을 출간했다. 현재는 여성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통증을 연구하며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여성 노동자의 몸을 탐구하고 있다.

✦ 나의 리서치 맵



이산하(b.1993)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이며 자연과 환상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회화와 스테인드글라스를 전공하여 유리와 회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간의 호기심과 상징성에 대한 연관관계를 역사 속에서 관찰하고 발견하여 시각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 나의 리서치 맵



완성까지 가는 작품들은 마감 기한이 메일러 작업하는 것 이 때문이라
 큐라터나 완성도가 떨어지고, 온전한 내 작품이라고 말한 수 있는 작품들은
 계획 단계에서 메모는 정가 때문임이다. 시각을 잘 못함 옆으로 전하림

정승혜

veggie_block_project

정승혜(b.1983)는 장소 특정적 설치, 드로잉, 사진 등의 매체를 통해서 두 상반되는 에너지와 그 경계에 대하여 질문해 왔다. 자연과 인공, 상상과 실제, 유년기와 현재의 이중성과 그 경계를 공간적, 건축적 언어로 표현을 지속해 왔다. 코로나 이후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삶과 작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태도로 작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농사를 배우며 최소한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삶의 방식을 예술 활동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나의 리서치 맵

<p>✦ 나의 리서치는 보통 어떻게 남겨지나요?</p>	<p>예시: 노트, 드로잉, 웹페이지, 책, 녹음, 음반, 비디오...</p> <p>웹페이지 작업을 뒷받침하기위해 준비되는 거석들, 드로잉 기사들, 연구논문, 영상 등은 그것이나 텍스트를 하나의 문서로 묶어서 보관하려고 남겨놓는다.</p>
<p>✦ 나의 리서치를 다른 방식으로 남겨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p>	<p>작업의 내용 및 표현의 풍부함/ 작업의 결과물 자체가 달라질 것 같다.</p>
<p>✦ 나의 리서치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싶은가요?</p>	<p>리서치를 남긴 그대로 보여주거나 리서치가 작업한다는 과정의 '어느모양'의 형태를 작품으로서 보여 혹은 전체의 형태로 보여주길 바란다.</p>
<p>✦ 지금 말하지 않고 남겨두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p>	<p>관계에 '어떠한 경계', '두 상반되는 에너지의 충돌'과 같은 정서적, 풍경은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폐쇄적 이혼은 한정영역, 의식의 시기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깨닫고 체험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더 명확하게 될 듯했다. 작가의 역할,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좀 더 구체화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다.</p>

2. 텍스트-이미지 그물코 짜기	
Q.	A.
<p>✦ 나의 작업 주제와 연관된 텍스트, 이미지, 기술 등 여러 자료를 끌어 와봅시다. 내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자료들은 무엇인가요?</p>	<p>인터넷 기사, 논문, 유튜브 영상들.</p>
<p>✦ 내가 이런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p>	<p>지금 진행중인 비정규직 project 에서 근사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실제작업에 대응해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p>
<p>✦ 내가 참고하는 자료의 한계는 무엇인가요?</p>	<p>간접 경험이다보니 나의 작업현황과 자료에 완전히 맞지 않아서 생기는 변주를 허투루 하게 이렇다. 질문이 생길때 답을 찾는 것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p>
<p>✦ 쌓인 자료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고 싶은가요?</p>	<p>실경적인 지식, 경험, 내가 앞으로 단언해 볼수 있을 '가능성', '점진', '희망' 등을 찾고싶다.</p>

정주하

juha.jung

정주하는 감정 이전의 감각에 주목하며, 그것이 설화나 오래된 이야기와 만나는 지점을 따라 작업하는 시각 예술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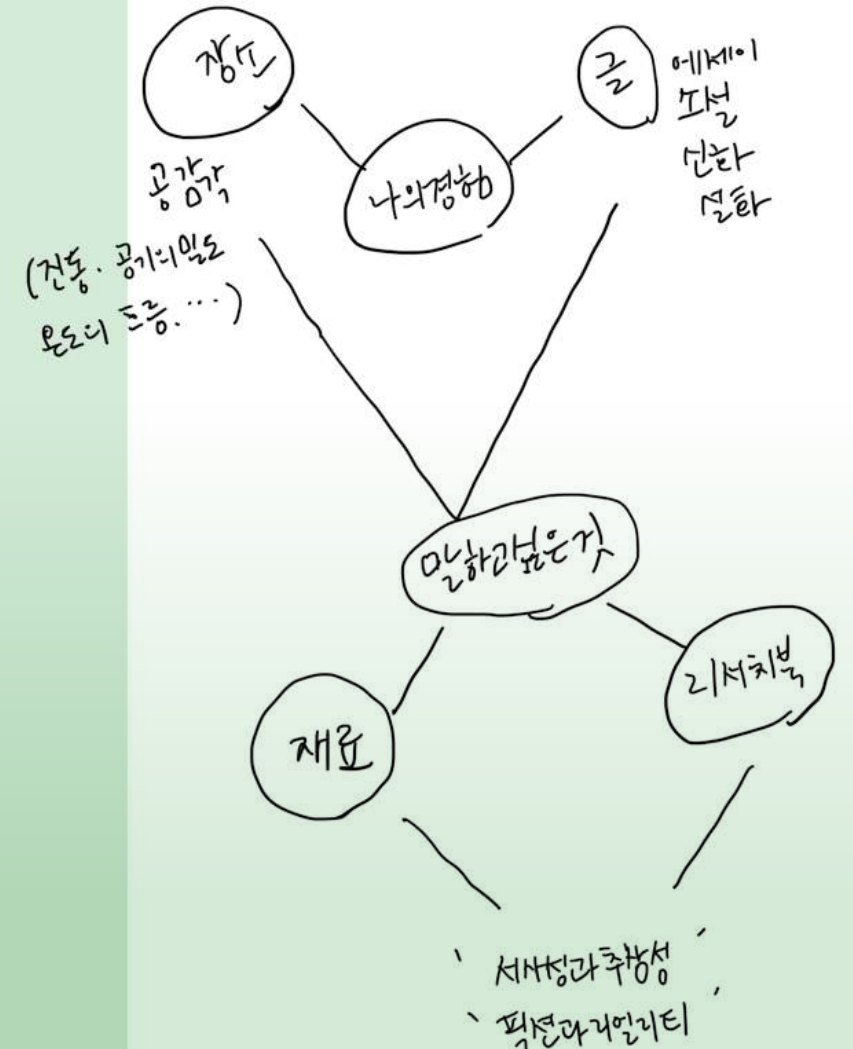
특정 장소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공기, 밤의 결, 소리 없는 떨림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감각들이 화면에 스며들고, 때로는 그 감각에 달아 있는 이야기들이 함께 따라온다.

화면에 등장하는 돌과 바위는 시간과 감정이 응축된 덩어리로, 그 표면을 통해 내면과 외부 세계를 바라본다.

최근에는 지역의 설화와 밤의 풍경, 감각이 각인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감정이 아닌 감각에서 출발하는 드로잉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축적된 감각들은 형상을 갖추기도 하고, 불완전한 균형 속에 머물기도 한다.

나의 리서치 맵

나만의 리서치 맵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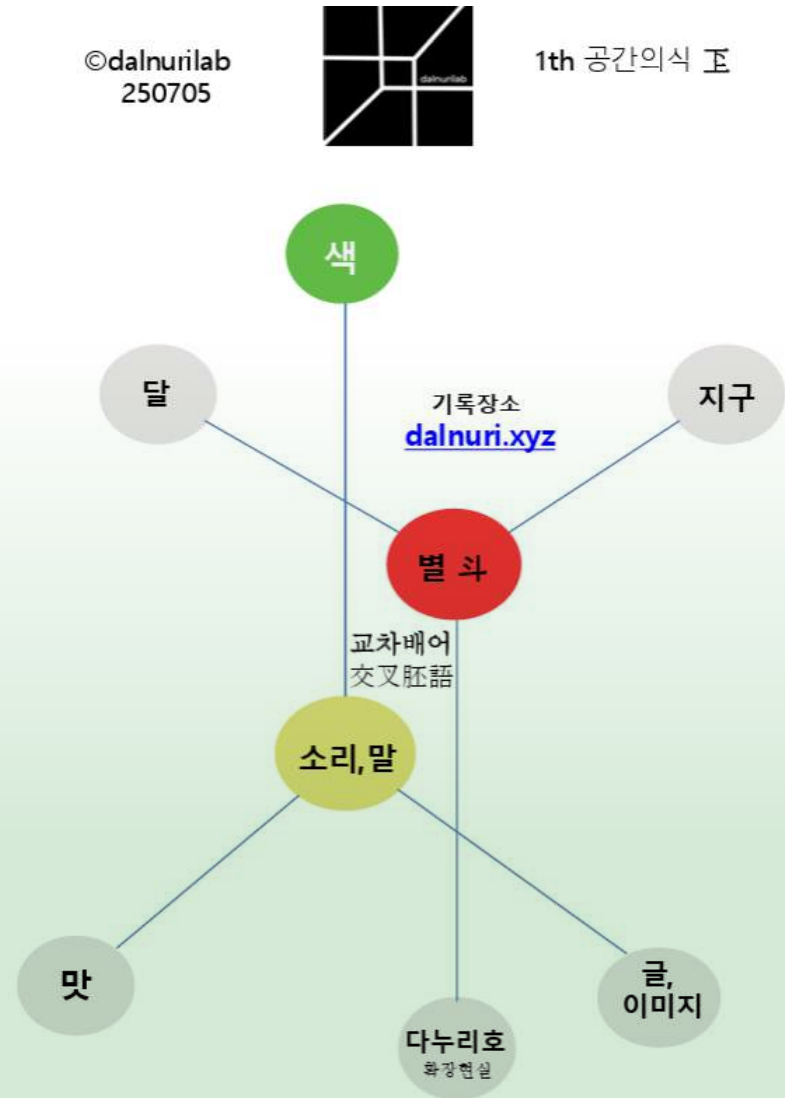


조은영 dalnurilab

dalnuri.xyz

www.dalnuri.xyz

나의 리서치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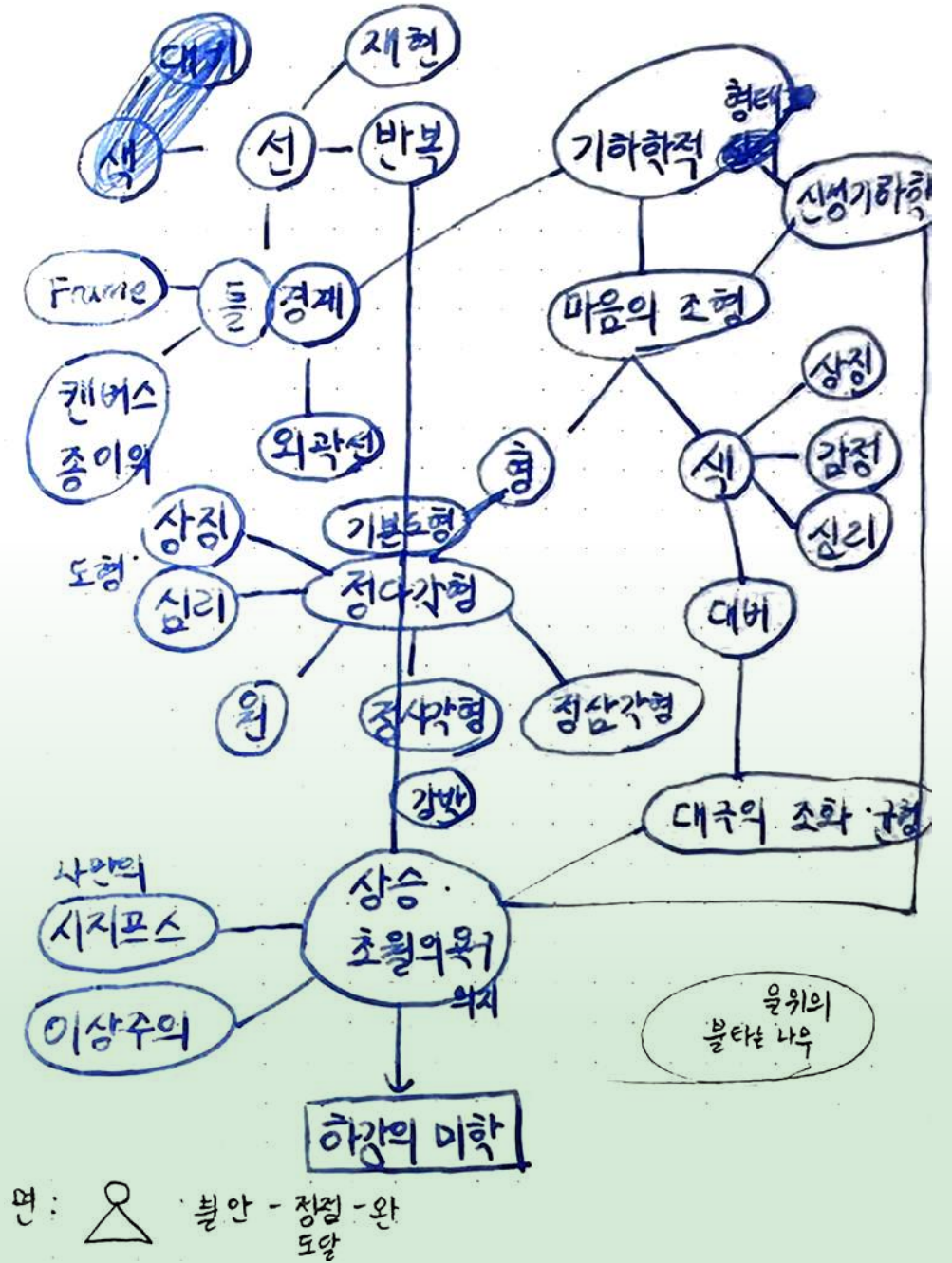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과 문화의 경계를 탐색하는 예술가이자 기획자 조은영입니다. 어쩌다 예술과 문화의 경계에서 뉴미디어라는 매체를 탐색하게 됐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유년기에 TV로 자주 보았던 일본 애니메이션과 할리우드 영화, 미국 팝 문화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2019년에 전광석화로 그려진 그림 한 점과 특별한 전회^{轉回}의 경험을 만든 제 그림의 제목을 고민, 고민하다가 떠오른 한두 개의 단어가 아주 어렵풋한 기억 속의 감각을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리게 했고 기억 너머의 시간과 연결된 그 한두 개의 단어들에 결국, 모국어의 스키마^{Schema}를 탐색하는 기획으로 현재 연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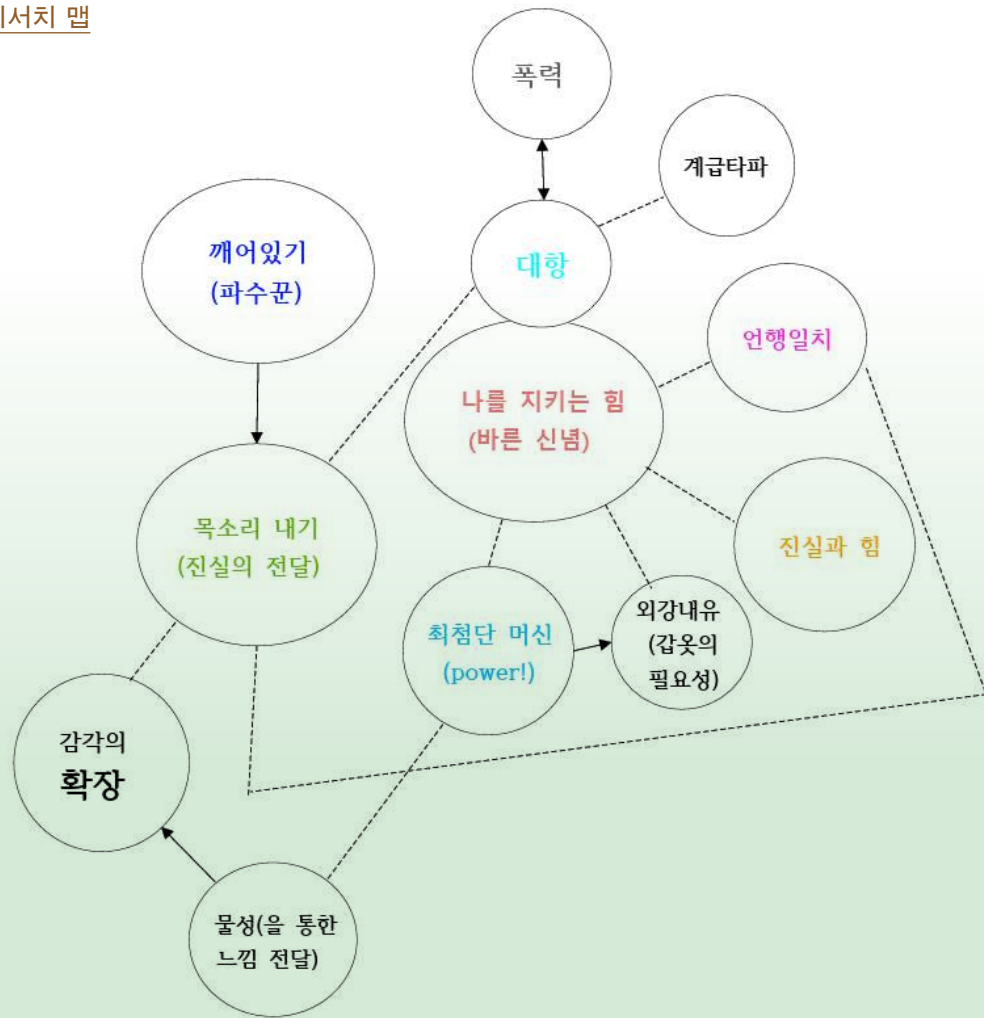
제가 운영하는 '달누리랩^{dalnurilab}'은 시간을 기반으로 세대 간의 협업을 통해 형성되는 상호작용을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매체를 연결하여 특정 장소와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시대성을 경험했고, 어렵풋해져 버린 역 근대의 한·중·일이 공유했던 동북아시아의 신화적 사유와 대수적 세계관을 동시대로, 장소에서 재전유^{再轉遊}하는 문화실험과 기술융합전시를 2024년 영등포에서 시도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술술센터가 있는 문래^{문래}의 장소적 특성과 연결해 'Sequence' 기술융합전시에서 초성·중성·종성의 우리말 표음 구조에 내재한 시공간 의식을 평면과 소리 설치로 재현했었어요. 제가 처음 뉴미디어 기획을 했던 작품이 천문도^{천문도}를 동시대적으로 재현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한자의 연결고리가 조선이 건국될 당시의 천문도에 이미 사영^{사영}되어있고 한글 스키마^{schema}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2024년 영등포에서 실감했습니다. 이다음 행보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보람은 작업을 해오면서 마주친 심리적 어려움이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반복의 행위를 한다. 작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는 찢소를 바르는 행위를 통해 시작만 반복함으로써 완성에 다다르기도 하고,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있었을 때는 완전한 수학적 도형의 재현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왜곡되는 선을 통해 완전함의 불완전함을 역설한다. 반복적으로 그려지며 천천히 변화하는 선은 질서를 추구하고면서도 질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작가의 양가감정을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선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는 작업은 작가에게 이전의 실수나 오류를 끌어안고, 앞으로를 예측하지 않으면서 현재에 머무르게 만든다. 작가는 이러한 성찰적 태도로 작업을 이어오며 삶과 작품을 일치시키려 노력한다.



✦ 나의 리서치 맵



전투기를 소재로 시각 미술작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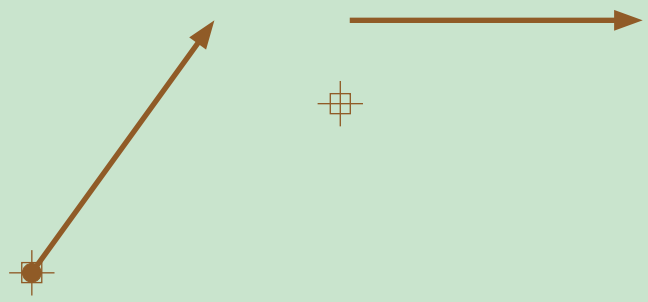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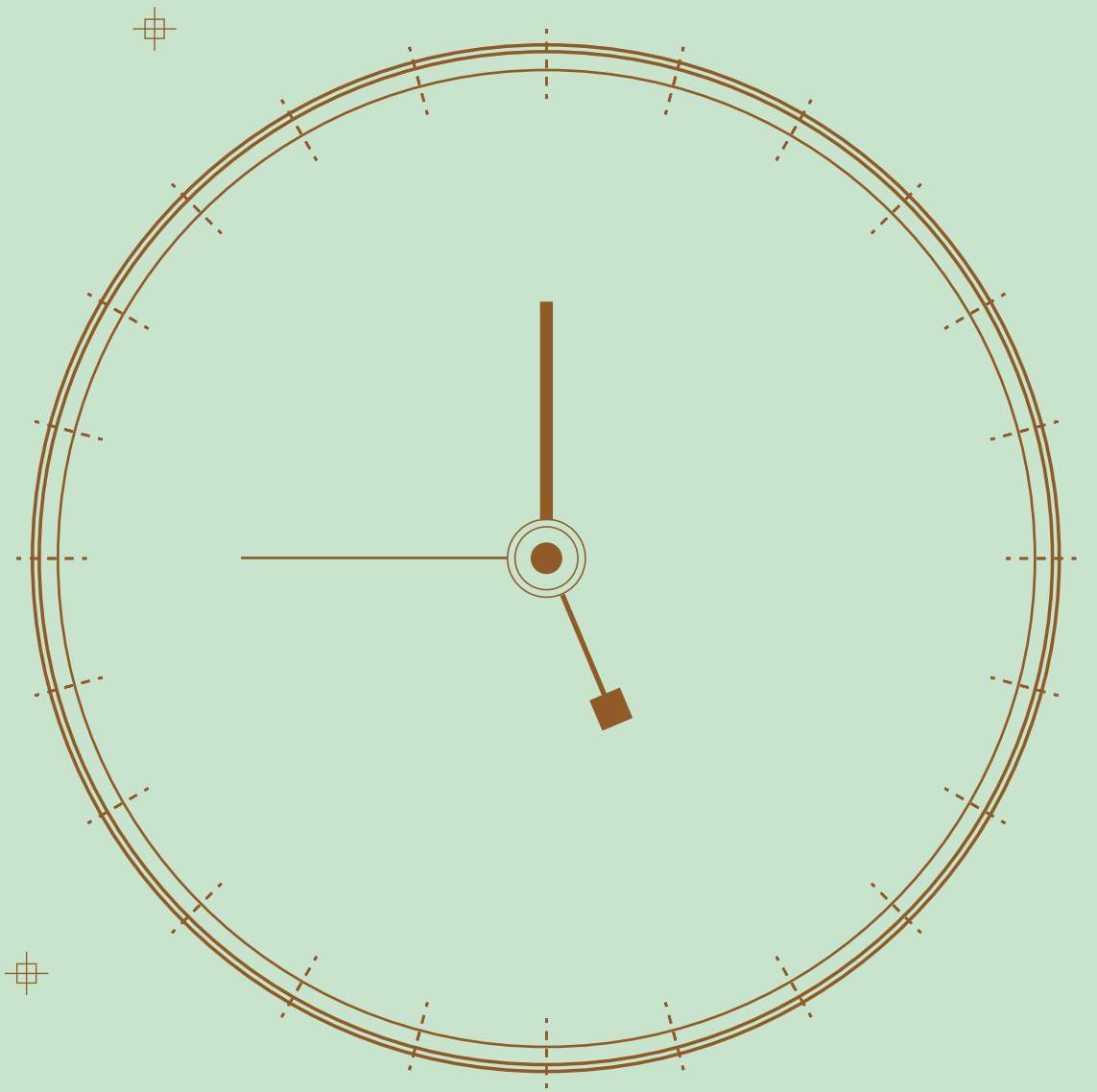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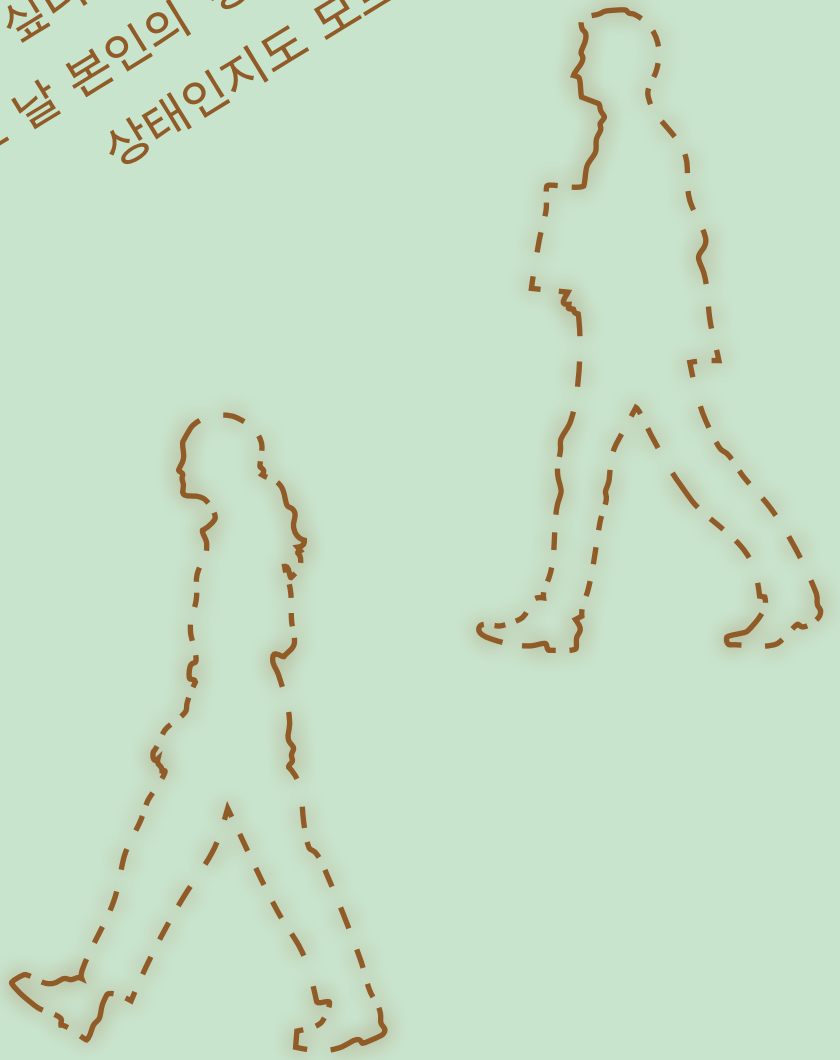
내게 자유는 소중한 가치다. 동의하지 않는 타협이나 굴종의 요구에 항거해 왔고, 그럴 때마다 겪게 된 고통 속에서 힘이 부족하다는 것에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 권력을 앞세워 옳지 않은 것에 타협을 요구하고, 힘으로 약자를 공격하고 탄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무감각한 가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싶었다. 그것이 전투기를 소재로 작업을 하게 된 이유다.

오일과 아크릴의 평면작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료의 연결이나 매체를 찾기 등 늘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시작한 재제작업은 2014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격 당시, 폭격을 환호하고 유희거리로 삼았던 이스라엘 국민들을 비난하는 기사 '스데롯 시네마'를 주제로한 작품 <팔레스타인의 불꽃놀이>에서 폭발의 모습을 이중적 의미의 불꽃놀이로 표현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이 외에 <매향리의 봄>에서는 자수로 매화꽃을, <갤러그의 반란>에서는 게임 속 갤러그가 현실속 드론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표현을 위해 아크릴로 입체 오라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2023년에는 야광빛 총알이 비처럼 매달려 있는 어두운 공간에서 인체 센서에 의해 전장의 폭격음을 들려주는 디지털을 이용한 설치작품으로 장기간 전장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포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 기존의 작업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자연을 담은 전투기, 깃털과 함께 비행하는 경비행기의 모습을 통해 자유와 평화, 행복을 담은 작업도 하고 있다. 작품을 통해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 소신을 말하는 것이 작가라 생각한다. 모두가 무념무상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은폐되고 왜곡되기 쉬운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에서 강자들로 인해 덮인 혹은 감춰진 진실을 찾으려 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찾은 진실의 소리를 작업을 통해 세상에 외치고자 한다.

“지금 구현하고 싶은 창작물의 요소를
구체화하고, 주제의 성질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다. 이것저것을 찌르며 다니다가
어느 날 본인의 ‘장르’를 발견하고 싶은
상태인지도 모르겠다.”



- 밤의 글쓰기 참여 예술가 다원

참여 예술가 후기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프로그램이 양질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술가로서 글쓰기에 대한 많은 이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촘촘한 기획과 많은
준비로 알차고 즐거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고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워킹 메이트분들이
모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내가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작품의 함의나, 나에게 맞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뼉 더 성장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더 심화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 주민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니
정말 너무 행복하고, 영등포 내 여러
예술가와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중복 선택 가능)

지속적인
예술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6%

지역에서의
예술활동
정착을 위해
12%

창작 과정
성장을 위해
4%

향후 문화관련 사업(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16%

예술가, 기획자, 창작자 지인 및
동료를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

48%

*문화인력: 예술가, 기획자, 문화콘텐츠 제작자, 크리에이티브

문화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32%

본 워크시트는 예술가의 글쓰기를 돕기 위해 고안된 자료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글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때, 예술가 여러분 각자가 바라볼 이정표로 쓰이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워크시트의 저작권은 해당 회차를 진행한 워킹 메이트에게 있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별적 활용 외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업 운영사인 바인드 아트랩 b_a_ind@daum.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시트

worksheet

오리엔테이션

자신이 쓴 소개글을 부착해주세요.

자기 소개글을 읽은 워킹 메이트의 궁금증

1. 낮과 밤의 나

낮과 밤이 만나 하루가 된다. 하루를 살아 나의 삶을 이루어간다.

나, 그리고 예술가인 나의 낮과 밤을 되돌아보자.

Q.	A.
<p>♣ 작업을 염두에 두거나 두지 않고, 내 시선을 자주 끄는 대상이 있나요?</p> <p>♣ 평소에 무엇을 자주 보나요?</p> <p>♣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요?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랬나요?</p>	
<p>♣ 행복하게 웃을 짓게 되는 상황이나 이미지가 있나요?</p>	
<p>♣ 곱씹곤 하는 과거의 (혹은 최근의) 사건이나 이미지가 있나요?</p>	
<p>♣ 무슨 이유로 그러나요?</p>	
<p>♣ 위에 적은 것들 중, 내 작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나요? 어떻게 연결되나요?</p>	

2. 작업, 크게 크게 훑어보기

작가 소개글, 작가노트, 리서치(아카이빙),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수정하기에 앞서, 작업을 다시 살펴보자.

Q.	A.
<p>♣ '이거, 정말 내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작업의 영감은 어디서 왔나요?</p>	
<p>♣ 그 작업에서 (예술가인)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p>	
<p>♣ 그 작업을 접하는 관객이 무엇에 초점을 두길 원하나요?</p>	

♣ 내 작업(작가 노트, 개별 작품 설명, 자기 소개글)에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등장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예) 기억, 공간, 신체, 관계, 일상, 소멸, 죽음 등
→ 키워드 5개 이상 적기

tip!

키워드를 그룹핑할 수 있다면, 유사 키워드를 묶어보세요. 이 키워드 묶음을 대체할 더 큰 개념이나 단어가 있나요?

♣ 위의 키워드를 현재 자기소개글의 표현이나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예) 개인과 사회의 관계, 기술과 인간성, 자아와 타인의 경계, 난민 문제, 소멸한 언어, 장소의 역사 등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나 문장이 있나요? **있다면**, 그 부분을 더 긴 글로 써볼 수 있을까요? **없다면**, 우회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쓸 수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3. 작업의 안쪽 굽어보기

작업을 하면서 덧칠하고 겹겹이 발라온 껍데기를 벗겨보자.

나도 몰랐던 작업의 단서나 서술의 실마리가 이미 그 안에 있었기를 기대하며.

Q.	A.
♣ 작업 전반에 걸쳐 볼 때, 재료 선택, 작업 과정, 결과물 등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유는요? 예) 충실한 리서치, 재료 탐구, 관객과의 소통, 즉흥성 등	

최근에 작업한 한두 작품을 떠올려보세요.

Q.	A.
♣ 작품(프로젝트)의 제목은 무엇이고 제작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용한 재료와 매체는 무엇인가요?	
----------------------	--

♣ 어떤 과정으로
제작했나요?

♣ 작업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나요? 혹은 완성 후에
든 생각이 있나요?

♣ 대부분 혼자 작업했나요?
협업자가 있나요?
♣ 창작 주제/보조를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결과적으로, 설계와 결과와
의미가 잘 연결되었나요?

♣ 이 작업을 통해 무엇을 알고
싶었나요? 무엇에 집중했나요?

♣ 그래서, 이 작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작업이 단초가 된 연작이나
다음 작품이 있나요?

♣ 이런 생각을 적어놓은
자기만의 메모장이 있나요?

낮의 글쓰기 3

Q.	A.
<p>☞ 포트폴리오 리뷰에서 받은 코멘트를 기록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완성까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p>	
<p>☞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자기소개글을 다시 써보세요. 처음 제출했던 자기소개와 비교하면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p>	

밤의 글쓰기 1

1. 나의 관심사, 작업 주제, 키워드 돌아보기	
2. 텍스트-이미지 그물코 짜기	
Q.	A.
<p>☞ 나의 작업 주제와 연관된 텍스트, 이미지, 기술 등 여러 자료를 끌어 와봅시다. 내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자료들은 무엇인가요?</p>	
<p>☞ 내가 이런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p>	
<p>☞ 내가 참고하는 자료의 한계는 무엇인가요?</p>	
<p>☞ 쌓인 자료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고 싶은가요?</p>	

밤의 글쓰기 2

아래 질문을 보고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글, 키워드, 그림, 기호 등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Q.	A.
♣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나는 왜 그 매체를 선택했나요?	예시: 글, 이미지, 설치, 퍼포먼스, 춤, 음악 등
♣ 내가 위 매체를 사용해서 지금 당장 시도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나는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요?	
♣ 내가 만든 것은 무엇을 '배제'하고 있나요? 혹은 무엇을 '익숙하게' 만드나요?	

♣ 나의 리서치는 보통 어떻게 남겨지나요?

예시: 노트, 드로잉, 웹페이지, 책, 녹음, 음반, 비디오...

♣ 나의 리서치를 다른 방식으로 남겨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나의 리서치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싶은가요?

♣ 지금 말하지 않고 남겨두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밤의 글쓰기 3

Q.	A.
----	----

♣ 1, 2회차에 제출한 과제에 대한 워킹 메이트의 코멘트를 기록해보세요.

♣ 앞으로 이어갈 나의 리서치와 작업 방향을 담아 자기소개글을 다시 써보세요. (500자 내외)

♣ 나만의 리서치 맵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결과공유회

옆 사람 인터뷰 | 나와 다른 트랙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필수 질문	
Q.	A.
♣ 옆사람의 이름(예술가명)은 무엇인가요?	
♣ 어떤 작업을 하는 예술가인가요? 그의 작업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선택한 트랙은 무엇이고,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해당 트랙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어떤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나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나요?	
♣ 무엇을 목표로 했나요? 무엇을 만들었나요?	
♣ 무엇이 어려웠나요?	
♣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나가고 싶나요?	

자유 질문

옆사람에게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직접 작성해보세요.

Q.

A.

♣

♣

옆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나의 응원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인터뷰가 끝나면, 작성한 인터뷰지를 옆 사람에게 전달해주세요.

나는 기다린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콜레트(Colette)가 자신에게 가장 본질적인 예술이란 “글쓰기가 아니라 기다리고, 감추고, 부스러기를 모으고, 다시 붙이고, 다시 금박을 입히고, 가장 나쁜 것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바꾸는, 저 시시함과 인생의 맛을 잃는 동시에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내면의 업무”라고 썼던 걸 기억한다.

대니 샤피로 저, 한유주 역,

『계속 쓰기: 나의 단어로』, 마티, 2022

2025 문화도시 영등포 — 예술하는 예술가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워크 메이트

김솔지, 봄로야, 임나래, 황바롬, 히스테리안(강정아, 강병우)

진행 및 운영 보조

김은성

결과자료집 기획 및 편집

임나래, 황바롬

운영사

바인드 아트랩(baind artlab)

사진

김동희

영상

헤즈킴 스튜디오

디자인

모어댄뷰

기획

영등포문화도시센터 김지훈, 정지연, 김상아

주최·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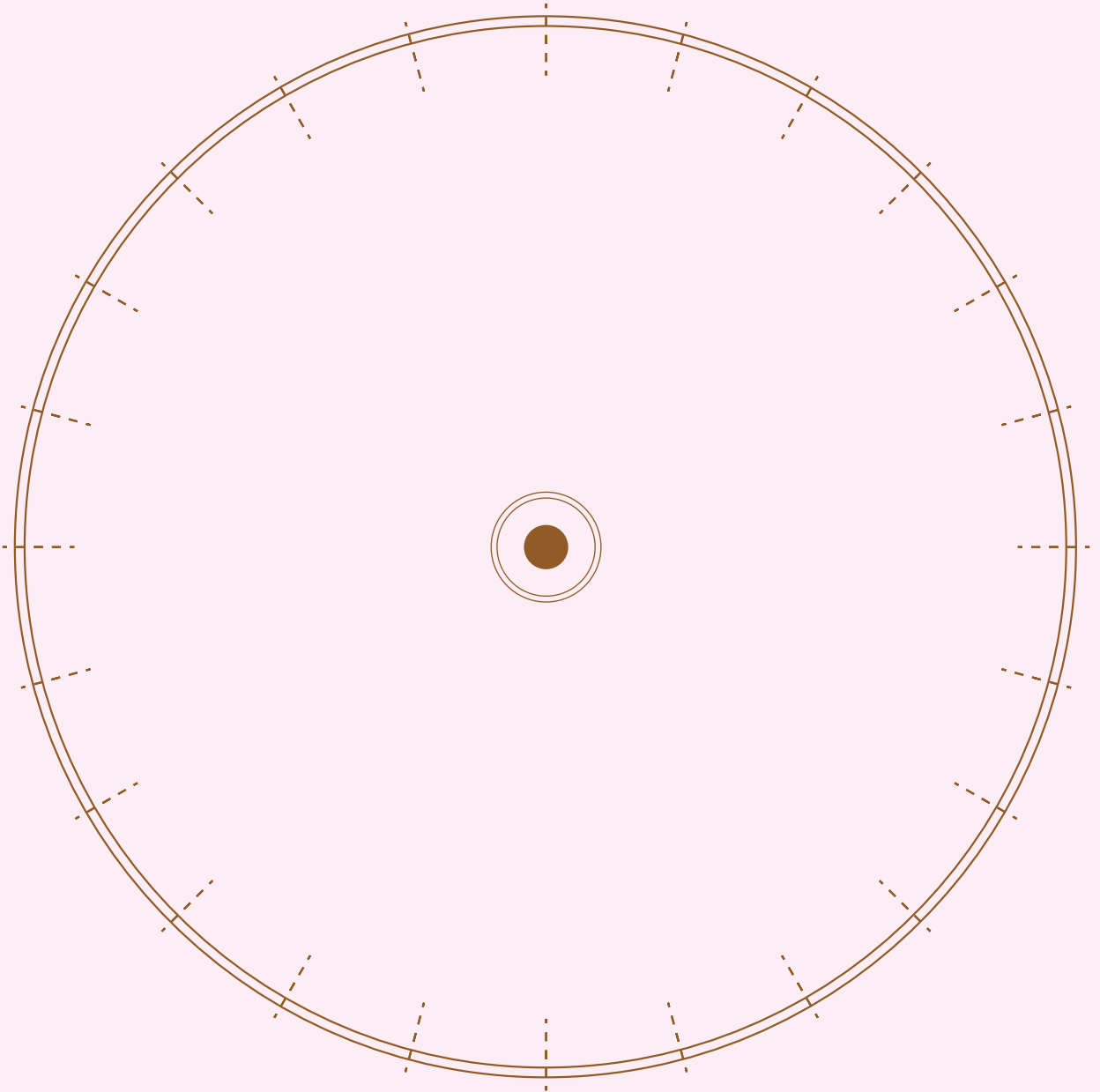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문화도시센터

펴낸 날 2025년 8월

펴낸 곳 영등포문화도시센터
(07290)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3길 15 술술센터
02-2634-2249
@ cultural_city_ydp 🏠 ccydp.kr 📝 colorful_ydp

펴낸 이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건왕

2025 예술하는 예술가
《예술가의 이중생활: 낮과 밤의 글쓰기》



영등포문화도시센터
(07290)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3길 15 술술센터
02-2634-2249
© cultural_city_ydp 🏠 ccydp.kr 📝 colorful_ydp